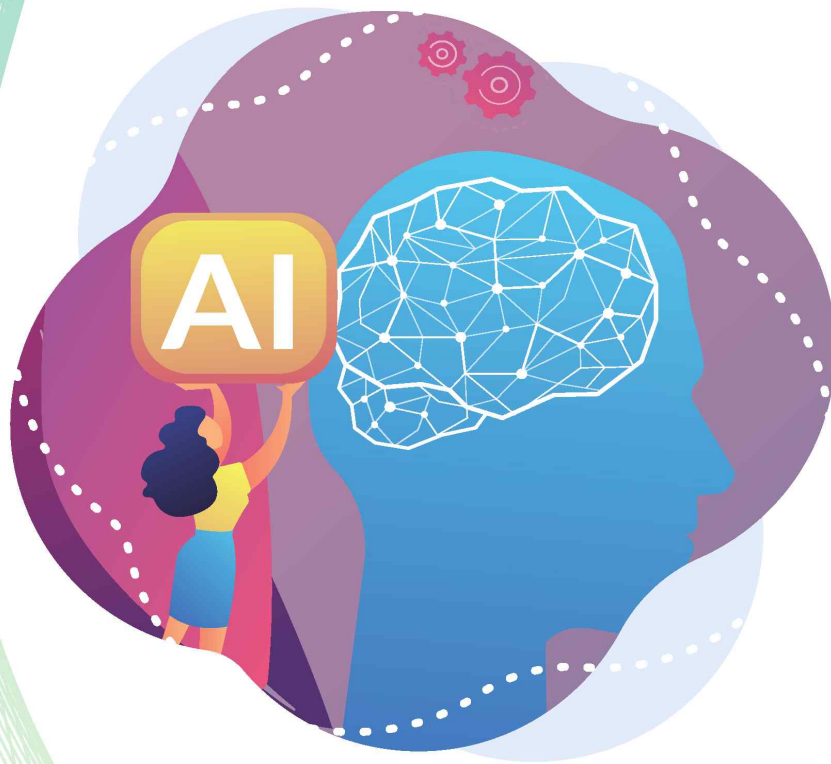




2024년 PKETA/GETA 공동학술대회

AI기반 영어교육: 도전과 기회



- 일시 : 2024년 6월 15일(토) 9:00~18:00
- 장소 : 부산대학교 인문관
- 주관 : 부산대학교 영어교육과
- 주최 : 팬코리아영어교육학회/글로벌영어교육학회
- 후원 : 성안당 캠프리지 · 이퍼블릭 · YBM



CAMBRIDGE
UNIVERSITY PRESS

E*PUBLIC



Opening Address



김선영

(글로벌영어교육학회 회장)

글로벌과 팬코리아 영어교육학회 회원과 학술대회 연구참여자 여러분!

저는 글로벌 영어교육학회 회장으로서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2024년 글로벌과 팬코리아 영어교육학회 연합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학술대회 준비에 헌신하신 학회 이사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두 학회를 최고의 학술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선배 교수님들과 연구자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기반의 교수 및 학습 환경이 확산되면서 영어 교육 역시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AI기반영어교육: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합학술대회는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만큼 기대도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연합학술대회가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의 영어교육에 대한 이론연구와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 연구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아가 연구 성과가 단순히 학술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장 교육에 적용 가능한 AI 기반의 영어 교수 및 학습모델을 구축하는 자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하계 연합학술대회가 성황리에 치러져 후학들에게 더 많은,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학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두 학회는 그동안 질적, 양적 성장을 거듭하며 영어교육을 선도하는 학술단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두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신 학회 이사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학술대회를 빛낼 연구자들과 토론자들,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elcoming Address



김규미

(팬코리아영어교육학회 회장)

2024년 팬코리아영어교육학회/글로벌영어교육학회 공동학술대회에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학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부산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님들과 총장님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학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글로벌영어교육학회의 회장님을 비롯한 이사진, 그리고 팬코리아영어교육학회의 학술지원팀, 총무님, 재무님을 비롯한 모든 이사진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 학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2024년 PKETA/GETA 공동학술대회는 “AI기반 영어교육: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변화된 시대에 영어 교육자로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살펴보고 한국 영어 교육이 나아갈 방향성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초청된 강연자와 다양한 주제의 발표는 학문적인 교류와 연구의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영어 교육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용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함께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영어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훌륭한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이번 학회가 여러분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NFERENCE SCHEDULE

9:00-10:00	Registration				
10:00-11:00	Concurrent Sessions				
	Session 1	Session 2	Session 3	Session 4	Session 5
11:10-12:10	Keynote Speech				
	AI 시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 : 의사소통, 문화이해, 내용 중심의 영어 교육 (신동광, 광주교육대학교)		412호 사회자: 서영주 (국립안동대학교) 토론자: 박윤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2:10-1:10	Lunch Break (217호)				
1:10-2:00	Plenary Session 1		Plenary Session 2		
	언어 학습의 혁명: 영어 수업에서 인공지능의 역할 (유병선, 전주사대부속고등학교) 410호		생성인공지능의 이해와 활용: ChatGPT와 썬타기 (류미영, 인천축현초등학교) 409호		
	사회자: 서보람(광주교육대학교) 토론자: 이영화(선문대학교)		사회자: 신유선(순천대학교) 토론자: 홍광희(영남대학교)		
	Concurrent Sessions				
	Session 1	Session 2	Session 3	Session 4	Session 5
2:10-3:10					
3:20-4:20					
4:30-5:30	Special Session				
	R을 활용한 통계분석의 실제: 영어교육자료에의 적용 (이용훈, 충남대학교)		408호 사회자: 육청민(한림대학교) 토론자: 전지현(부산대학교)		
5:30-6:00	학술상 시상식 (사회: 서영주, 국립안동대학교)				
	연구윤리교육 및 총회 (사회자: 전지현, 부산대학교)				

Concurrent Session 1 (좌장: 정영경, 부경대학교) 410호

Time	Session 1	Moderator /Discussant
10:00-11:00	“Education 5.0”과 하이터치 하이테크 (이혜진, 원광대학교)	사회자: (주미진, 강원대학교) 토론자: (전지현, 부산대학교)
	Exploring Perspectives of Instructors and Learners on the Integration of AI-based Tools in L2 Classrooms (신유선, 순천대학교)	
	CAF 기반 토익 스피킹 대안모델 구현을 위한 기초연구: CAF와 토익 스피킹 점수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신순란, 부산대학교)	
11:10-12:10	Keynote Speech	
12:10-1:10	Lunch Break (217호)	
1:10-2:00	Plenary Sessions	
2:10-3:10	YouTube 동영상 및 댓글에 나타난 영어 학습자의 말하기 불안감 (안수진, 전주교육대학교)	사회자: (최정인, 부산대학교) 토론자: (조영교, 경남대학교)
	Iatrogenic Errors (신은영, 순천대학교)	
	플립러닝이 영어 능력별 중학생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 (전준탁, 강원대학교)	
3:20-4:20	ChatGPT를 사용한 영어 교육 및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 (임경빈, 제주한라대학교)	사회자: (신은영, 순천대학교) 토론자: (황희정, 중원대학교)
	Translingualism and the Formation of Identities: A Duoethnography of Two Korean ELT Professionals in Higher Education (임재현, 대구교육대학교) (박지연, 서울시립대학교)	
	Does Majoring English at College Make any Differenc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English-major Students’ and non-English-major Students’ Comprehension Skills (박기찬, 해군사관학교)	
4:30-5:30	Special Session	
5:30-6:00	Closing Ceremony/ Research Ethics Workshop	

Concurrent Session 2 (좌장: 김정덕, 국립안동대학교) 409호

Time	Session 2	Moderator /Discussant
10:00-11:00	The IRE/IRF Sequences as Productive for Facilitating Students' Speaking (허선민, 충북대학교)	사회자: (김윤정, 경남대학교) 토론자: (김정덕, 국립안동대학교)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언어, 사회/문화 정체성과 영어 패쇄음 발화 VOT 관련 연구 (이향미, 부산대학교)	
	QuizN: A Promising Gamification Tool for Enhancing Vocabulary Learning in EFL Classes (이유화, 서영주, 국립안동대학교)	
11:10-12:10	Keynote Speech	
12:10-1:10	Lunch Break (217호)	
1:10-2:00	Plenary Sessions	
2:10-3:10	학습자 선천지능에 의거한 영어 학습 지도 방법 (한상호,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사회자: (서보람, 광주교육대학교) 토론자: (허선민, 충북대학교)
	평가 주체로서 학생의 가능성과 문제점 (백지원, 대구대학교) (최재호, 상명대학교)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디지털 영어 교육 대전환 (서재웅, 부산마케팅고등학교) (이혜진, 원광대학교)	
3:20-4:20	AI 챗봇이 초등영어학습자의 영어 성취수준 및 정의적 요인에 미치는 효과 (양재석, 대구교육대학교)	사회자: (서미교, 부산대학교) 토론자: (육청민, 한림대학교)
	영어 수업 즐거움이 중학교 영어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김고은, 진안중학교) (최선희, 전주대학교)	
	An Analysis of Young Korean EFL Learners' Receptive Knowledge of Different Types of Collocations in Aural and Written Modes (박소담, 윤현숙, 한국외국어대학교)	
4:30-5:30	Special Session	
5:30-6:00	Closing Ceremony/ Research Ethics Workshop	

Concurrent Session 3 (좌장: 서영주, 국립안동대학교) 408호

Time	Session 3	Moderator /Discussant
10:00-11:00	Two Types of Indirect Written Corrective Feedback, Revision, and L2 Development (서보람, 광주교육대학교)	사회자: (한상호, 국제뇌교육종합대학 원대학교) 토론자: (홍광희, 영남대학교)
	ChatGPT를 활용한 영어글쓰기 피드백과 교사 피드백의 비교: 문법과 논리적 구성의 오류분석을 중심으로 (김지희, 경북대학교)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직접 및 간접 등급 함축 인식 비교 분석 (최정인, 부산대학교)	
11:10-12:10	Keynote Speech	
12:10-1:10	Lunch Break (217호)	
1:10-2:00	Plenary Sessions	
2:10-3:10	AI 이미지 생성기를 활용한 영어 교육 방안 연구 (황요한, 전주대학교)	사회자: (류미령, 부경대학교) 토론자: (백주현, 부산교육대학교)
	A Study on the Foreign Accents of Chinese English Learners (Yuying Kang, Datong University)	
	Patterns of Voice: A Model-Driven Analysis of Opinion-Based Argumentative Texts from Korean University Students (이영화, 선문대학교)	
3:20-4:20	IB PYP 프레임워크 기반 영어 수업이 초등학생의 읽기 능력과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문혜정, 봉학초등학교) (백주현, 부산교육대학교)	사회자: (이향미, 부산대학교) 토론자: (이혜진, 원광대학교)
	The Impact of Guilt and Shame on EFL Learners' Self-Assessment of English Proficiency: A Comparison between College and High School Students (김정아, 전남대학교)	
	EFL 영어발음 교육에 있어 초음파를 활용한 시각적피드백과 형태초점교수법의 영향 (이윤경, 경북대학교) (윤관희, 대구대학교)	
4:30-5:30	Special Session	
5:30-6:00	Closing Ceremony/ Research Ethics Workshop	

Concurrent Session 4 (좌장: 박시형, 부경대학교) 405호

Time	Session 4	Moderator /Discussant
10:00-11:00	Effects of TTS and ASR App-based Corrective Feedback Activities on College Students' English Pronunciation Intelligibility (박나연, 부산대학교)	사회자: (박시형, 부경대학교) 토론자: (정우현, 영남대학교)
	영어 예비교사의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경험, 인식 및 태도 간의 관계 탐색 (최재호, 상명대학교)	
	관광 영어 수업에서 발표 활동이 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미치는 영향 (이가영, 부산외국어대학교)	
11:10-12:10	Keynote Speech	
12:10-1:10	Lunch Break (217호)	
1:10-2:00	Plenary Sessions	
2:10-3:10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한 수업이 고등학교 학습자의 문항 유형별 독해 능력과 정의적 태도 및 독해 전략 활용에 미치는 영향 (오수진, 계룡용남고등학교)	사회자: (오미숙: 국립안동대학교) 토론자: (양재석, 대구교육대학교)
	AI를 활용한 영어 그림책 제작 수업이 학생들의 읽기 및 쓰기 능력과 자기효능감, 디지털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황보은, 논산여자고등학교)	
	A Bibliometric Analysi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eachers Research (김동현, 이길영, 한국외국어대학교)	
3:20-4:20	Experiencing Real-World Learning through PBL in EFL College Reading Classes Based on Learner Perceptions (오미숙, 이유화, 국립안동대학교)	사회자: (장소영, 군산대학교) 토론자: (황요한, 전주대학교)
	The Effect of e-book Reading Activities on Basic English Literacy and the Learning Attitudes of Middle School English Underachievers (류신아, 논산여자고등학교) (배지영, 공주대학교)	
	Using TalkPal AI as a Motivational Tool (Melanie Piacente, Hoekyeung Kim, SUNY Binghamton)	
4:30-5:30	Special Session	
5:30-6:00	Closing Ceremony/ Research Ethics Workshop	

Concurrent Session 5 (좌장: 김규미, 국립안동대학교) 404호

Time	Session 5	Moderator /Discussant
10:00-11:00	영어 수업에 대한 중학생들의 학습 정서 이해: 척도 타당화 연구 (장소영, 군산대학교) (최선희, 전주대학교)	사회자: 김은정(영남대학교) 토론자: (임재현, 대구교육대학교)
	L2 언어 인지 발화 과정에서의 말하기 조정에 대한 성별의 영향 (서미교, 부산대학교)	
	Motivation to Learn English among Today's Adult Korean Learners of English: From Motivational Dichotomies to a Continuum Perspective (박지연, 박윤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1:10-12:10	Keynote Speech	
12:10-1:10	Lunch Break (217호)	
1:10-2:00	Plenary Sessions	
2:10-3:10	영어 교육을 위한 ChatGPT의 잠재적 평가: 교육적 맥락에서의 언어적 특성 분석 (강준수, 중앙대학교) (박신향, 대구한의대학교)	사회자: (김남희, 조선대학교) 토론자: (김선영, 목포대학교)
	Whose the killer?: Korean College Students' Discursive Constructions of "Killer Questions" in Korean College Entrance Exams through a Discursive Psychology Approach (임재현, 대구교육대학교)	
	중학교 영어듣기능력평가의 의사소통기능 활용 분석 (최선희, 전주대학교) (배지영, 공주대학교) (박상복,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20-4:20		
4:30-5:30	Special Session	
5:30-6:00	Closing Ceremony/ Research Ethics Workshop	

KEYNOTE SPEAKER

AI 시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 의사소통, 문화이해, 내용 중심의 영어 교육

신동광

(광주교육대학교)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AI가 일상화되면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주요 기관에서는 이미 단순 직종만 AI로 대체될 것이라는 초기 전망과는 달리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도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한지훈, 2023). 이러한 현실에서 영어 교육 종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아마도 "AI 시대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영어 교육은 필요한가?"일 것이다. Shin(2017)은 영어 교육의 미래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전망한 바 있다. 공통적으로 외국어 교육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AI 기술의 발전으로 영어 교육이 매우 위축될 것이라는 첫 번째 전망과 기존의 영어 교육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어 교육이 요구되면서 시장은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두 번째 전망이었다. 여전히 이 두 가지 전망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았지만 타 분야의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AI 관련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며 1-2년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수요 또한 급격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AI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업무까지 수행하며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박명수, 2023).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창의적이고 고도의 프로그래밍 기술을 가진 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인력에 대한 수요는 물론 예전의 수요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미 상당수의 프로그래밍 작업은 AI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의 수요와 실제 현장의 수요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는 적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보장되면 그에 대한 경쟁과 교육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외국어 능력도 마찬가지이다. 경제, 외교, 교육 등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외국어 역량을 가진 인재에 대한 수요는 제한적이겠지만, 그 인재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우위를 차지한다면 많은 교육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밖에도 영어 교육의 수요를 국제적 관점으로 확장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과 AI의 발전은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초연결 사회를 가능하게 했다. 이제 국경과 같은 물리적인 경계가 사이버 세계를 통한 정보와 문화의 교류를 막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는 앞으로 교육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확보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의 확보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OECD는 글로벌 역량 배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PISA(국가학업성취도평가) 2018에서 혁신 부문에 글로벌 역량 평가를 추가했다. 글로벌 역량은 글로벌 이슈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관점과 해석을 이해하며, 효율적 상호작용과 소통 능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역량 평균 점수 509점으로 참여국 평균을 상회했으나, 상대적 성취도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OECD는 학교 차원에서 시민의 공유 가치 즉 '타문화 배경의 사람들에 대한 개방성, 문화적 타자성에 대한 존중, 글로벌 마인드 및 책임감'과 같은 글로벌 역량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최인선 외, 2021; OECD, 2020).

이러한 글로벌 역량의 핵심적인 구인이 의사소통 능력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이다. 언어가 우리의 생각과 세상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것처럼 문화도 마찬가지이다 (Arshad & Chung, 2022; Bezin & Moizeau, 2017). 언어와 문화 간의 상호작용은 단순히 언어의 인지적 표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까지 확장된다(Berry et al., 2022). 즉 언어는 이미 문화와 상호작용하며 언어 안에 많은 문화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언어를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로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 외국어 학습에는 그 언어권의 문화 교육도 수반되어야 한다. 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해야 자연스러운 언어 구사는 물론, 그 문화권에서 당면한 문제해결도 가능할 것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미네르바 대학이나 한국판 미네르바 대학인 태재대는 지식 전달 수업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지만, 학기별로 세계 주요 도시의 기숙사에 머물면서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을 경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영어는 학습의 목표가 아닌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된다. 하지만 여전히 영어 능력은 학습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영어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전형적인 몰입식 교육 프로그램 (Immersion Program)이라 할 수 있다.

이 교육 모델이 영어 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주류 모델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이 모델은 다양한 문화권에 직접 체류하면서 학습자들의 협업 속에 다양한 문제해결 학습을 시도하고, 동시에 외국어(영어) 능력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역량 배양에 이상적인 학습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볼 수 있다. 또한 AR과 VR 기술의 발전은 여기에 날개를 달아 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에도 영어 교육의 필요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로서가 아닌, 문화적 소양을 기르고 글로벌 역량을 갖추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영어 교육이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영어 교육은 언어 자체에 대한 교육을 넘어 문화적 내용을 강화하고, 실제 상황에서의 활용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명수. (2023.07.05). 빅테크·실리콘밸리에 AI발 해고폭풍이 닥쳤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1098921.html>
- 최인선, 김명화, 김수진, 김현정, 이신명. (2021). *PISA 2018 결과에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성취 특성*(KICE 이슈페이퍼; ORM 2021-40-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지훈. (2023.11.16.). 한국은행 "의사·회계사·변호사, AI로 대체될 위험 크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6059500002>
- Arshad M., & Chung J. M. (2022).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considering culture, race, and ethnicity in personality psychology.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6(2), 1-16.
- Berry, J. W., Lonner W. J., & Best D. L. (2022). The advent of cross-cultural psychology. *Th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53(7-8), 715-728.
- Bezin E., & Moizeau F. (2017). Cultural dynamics, social mobility, and urban segregation. *Journal of Urban Economics*, 99, 173-187.
- OECD (2020). *TALIS 2018 results (Volume VI): Are students ready to thrive in an interconnected world?* OECD Publishing.
- Shin, D. (2017). Teaching English thru an AI assistant. In H. Kim (Ed.), *Special colloquium part 1: English Education in the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p. 34). KATE.

Author: 신동광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응용언어학 박사
-현 광주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현 한국영어교육학회 부회장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전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부회장
-전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부회장
E-mail: sdhera@gmail.com
Homepage: <https://cafe.daum.net/sdhera>

PLENARY SPEAKER

언어학습의 혁명: 영어 수업에서 인공지능의 역할

유병선

(전주사대부속고등학교)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강력한 네트워크 연결,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 IoT의 대중화가 우리의 일상과 교육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언어 교육에서 개인화 학습,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 대화형 학습 환경 조성을 가능하게 하여 교육의 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LLM(Large Language Models)을 기반으로 하는 Chat GPT와 같은 도구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이 기술이 전통적인 교실 환경에 제세하는 새로운 시사점과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고등학교 영어수업에 적용된 GPT 기반 챗봇 활용 사례를 통해 개인화 학습 및 학생들의 생산적 언어 능력(Productive Skill) 향상을 위한 LLM의 긍정적 기대를 탐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혁신적 접근이 교육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Author: 유병선

전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영어교사
Google for Education 공인 트레이너
Google for Education 공인 코치
Google for Education 공인 혁신가(#VIA21)
Applied Digital Skills Ambassador
Mote Ambassador
EdPuzzle Coach 2022-2023

유병선은 지난 11년간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영어 교육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에듀테크를 영어 수업에 적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faithful.byungsun@gmail.com

PLENARY SPEAKER

생성인공지능의 이해와 활용: ChatGPT와 썸타기

류미영

(인천축현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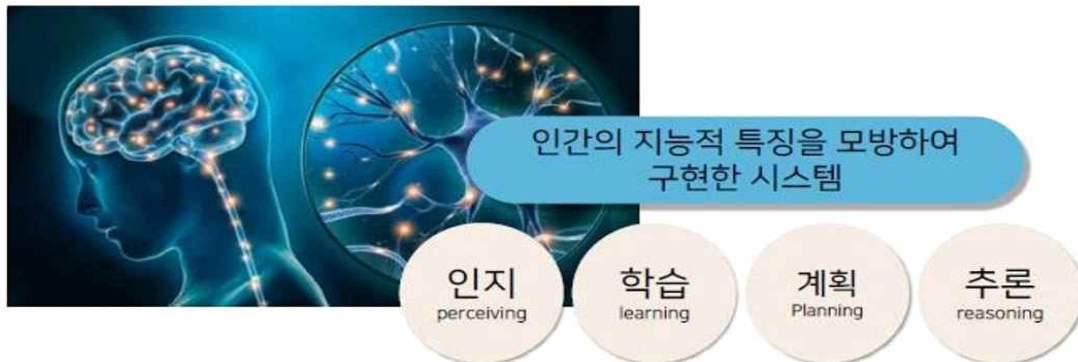
강사소개

- 경인교대 융합교육 석사, 컴퓨터교육 박사
- (현) 초등학교 교사,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 부회장
- (현) 경인교대 인공지능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 (2015~현재) 경인교대 컴퓨터교육과 학부 출강
- (2016~현재) 경인교대 융합교육과, AI융합교육과 대학원 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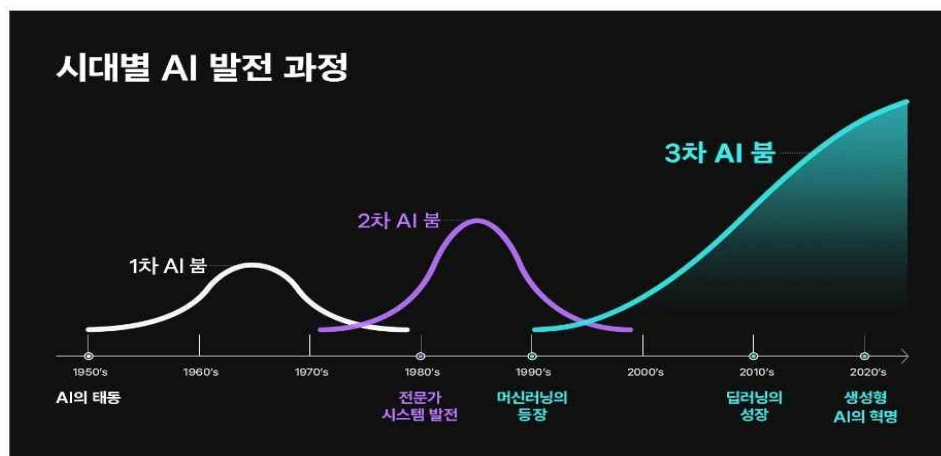


- 2016, (저술) 컴퓨팅 사고력을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 2016, (저술) 중학교 정보 교과서(성안당)
- 2018, (저술) 컴퓨팅 사고력을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방법
- 2019, (저술) 컴퓨팅 사고를 위한 스크래치 3.0
- 2020, 교육부 인공지능 교육정책 자문단
- 2020, (저술) 코딩과 함께 하는 인공지능 첫걸음
- 2020, (저술) AI 플레이 그라운드
- 2020, (저술) 고등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 교과서(금성)
- 2020, (저술) 인천형 착한 인공지능 교재 개발
- 2020, 인천교육연구원 원격연수 '교실에서 바로 쓰는 인공지능교육'
- 2020, 인천시교육청 교육정책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분석과 AI 플랫폼 구성 방안
- 2019~2021, (한국과학창의재단) AI교육연구소 STEAM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연구진
- 2021~2023, (한국과학창의재단) AI교육연구소 창의교육거점센터 운영 프로젝트 연구진
- 2021, (저술) AI사고를 위한 인공지능교육
- 2021, (저술) 놀랍게 쉬운 인공지능의 이해와 실습
- 2022,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 '인간중심 인공지능 교육'
- 2023, (저술) 챗GPT와 썸타기
- 2023, (저술) 미래엔 중학교 정보 교과서, 초등학교 실과 교과서, 씨마스 초등3~4 디지털 교과서 작업 중

AI(Artificial Intelligent, 인공지능)



AI의 시작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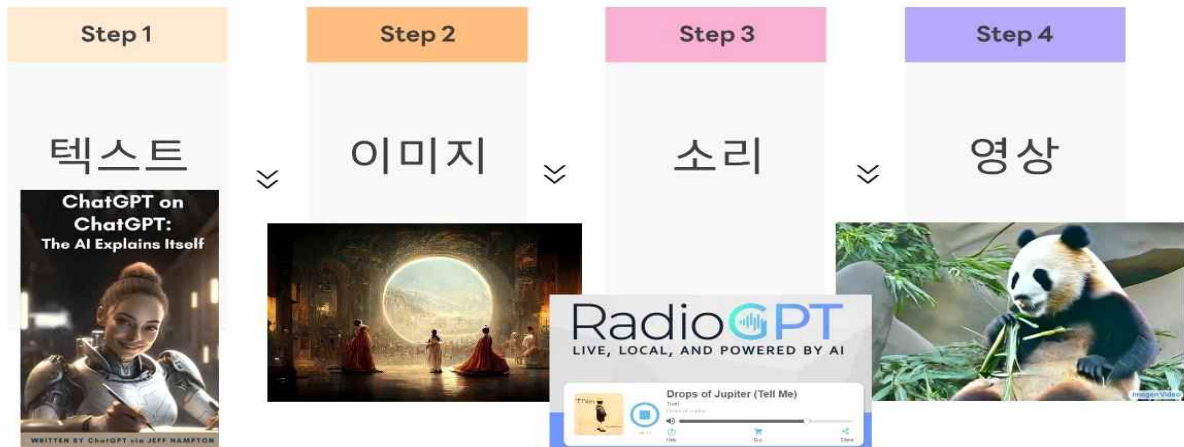
<https://news.skhyunix.co.kr/post/all-around-ai-1>

생성형 AI



AI와 데이터 분석 기초(윤상혁, 양지훈, 2021)

무엇을 생성하지?



생성AI 활용1 - 번역에 감정을 넣다!

SeamlessExpressive

SeamlessExpressive is an AI model that aims to maintain expressive speech style elements in the translation



<https://seamless.metademolab.com/>

생성AI 활용2 - 나만의 영어 회화 만들기

1 ChatGPT에 프롬프트 입력하기

해외 여행을 갈 때 영어 회화가 필요한 상황을 생각해 보자.

상항	세부 내용		
비행기 티켓예약하기	공항에서 티켓팅 하기	은행에서 화폐 교환하기	목적지까지의 소요 시간 묻기
가게에서 사귄다 할 수 있는 표현	작업 시간 묻기, 만세물 구매 등	세제소 요망하기 (음료, 담요, 귀마개, 간식, 잡지 등)	이름 때 (영화, 동물, 복음 등)

2 대화 문장을 음성 파일로 바꾸기

①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꾸기 위해 TTS(Text To Speech)를 사용해 보자.



'NaturalReader'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로그인도 구글 계정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 출처: <https://www.naturefinders.com>



감사합니다.

SPECIAL SESSION

R을 활용한 통계분석의 실제: 영어교육자료에의 적용

이용훈

(충남대학교)

통계학은 언어학뿐만 아니라 교육학 자료의 분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R을 활용하여 교육학 자료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Likert Scale 등을 활용하여 교육학 자료들을 얻은 후에, 이 자료들을 R을 사용하여 어떻게 통계분석을 수행하는지를 알아본다.

통계분석의 방법은 크게 모수검정과 비모수검정으로 나뉜다. 모수검정(parametric test)은 모집단의 특성을 특정 모수(평균과 분산)를 사용하여 특성화하는 가설 검정 방법이다 (이용훈, 2017). 모수검정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며, t-검정과 ANOVA(분산분석)가 여기에 속한다. 비모수검정(non-parametric test)은 특정 모수를 사용하여 모집단의 분포를 특성화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 검정의 방법이다. 이 분석방법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거나 질적 데이터(범주 데이터 또는 순위 데이터)일 때 사용되며, 비율척도나 등간척도 데이터에서 벗어난 값이 있을 때도 효과적이다. Mann-Whitney U-검정이나 Wilcoxon 검정, Kruskal-Wallis 검정, Friedman 검정 등이 모두 비모수검정에 해당한다.

t-검정그룹에는 4개의 분석방법이 있다. 먼저, 독립표본 t-검정(unpaired t-test)은 두 개의 독립적인 그룹을 비교할 때 사용되며, 두 그룹의 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 검정의 목적은 두 그룹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것이다. Mann-Whitney 검정(Mann-Whitney U-test)은 두 개의 독립적인 그룹을 비교할 때 사용되며,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 검정의 목적은 두 그룹의 중위수 차이를 검정하는 것이다.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은 같은 그룹의 두 시점을 비교할 때 사용되며, 두 시점의 관측치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을 때 사용한다. 이 검정의 목적은 두 시점 간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것이다.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test)은 같은 그룹의 두 시점을 비교할 때 사용하며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 검정의 목적은 두 시점 간의 중위수 차이를 검정하는 것이다.

분산분석에도 4개의 분석방법이 있다. 먼저,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은 3개 이상의 그룹 간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데 사용하며, 정규분포를 따르는 데이터와 등분산성을 가정한다. 이 검정의 목적은 그룹들간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것이다.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measures ANOVA)은 같은 그룹의 여러 시점을 비교할 때 사용되며, 시점 간 관측치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아도 된다. 이 검정의 목적은 반복된 측정에서 그룹 간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것이다. Kruskal-Wallis 검정(Kruskal-Wallis test)은 비모수적으로 그룹 간 중위수 차이를 검정으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데이터에 적용되며 정규분포 가정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 Friedman 검정(Friedman test)은 반복측정에서 비모수적으로 그룹 간 중위수 차이를 검정하며,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데이터에 적용된다. 이 검정의 목적은 반복된 측정에서 중위수 차이를 검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R을 통해 살펴볼 통계분석은 정규성검정, t-검정, ANOVA등이 있다. 본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R을 활용하여 교육학 자료들을 통계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이용훈. (2017). R을 활용한 코퍼스언어학과 통계학. 서울: 한국문화사.

Author: 이용훈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언어학 박사
- 현 충남대학교 HUSS 연구교수 (빅데이터, 딥러닝)
- 현 한국코퍼스언어학회 학술이사
- 전 코퍼스영어학통계연구소 소장

E-mail: yleeuiuc@cnu.ac.kr

Concurrent Session 1 (좌장: 정영경, 부경대학교) 410호

Time	Session 1	Moderator /Discussant
10:00-11:00	“Education 5.0”과 하이터치 하이테크 (이혜진, 원광대학교)	사회자: (주미진, 강원대학교) 토론자: (전지현, 부산대학교)
	Exploring Perspectives of Instructors and Learners on the Integration of AI-based Tools in L2 Classrooms (신유선, 순천대학교)	
	CAF 기반 토익 스피킹 대안모델 구현을 위한 기초연구: CAF와 토익 스피킹 점수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신순란, 부산대학교)	
11:10-12:10	Keynote Speech	
12:10-1:10	Lunch Break (217호)	
1:10-2:00	Plenary Sessions	
2:10-3:10	YouTube 동영상 및 댓글에 나타난 영어 학습자의 말하기 불안감 (안수진, 전주교육대학교)	사회자: (최정인, 부산대학교) 토론자: (조영교, 경남대학교)
	Iatrogenic Errors (신은영, 순천대학교)	
	플립드러닝이 영어 능력별 중학생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 (전준탁, 강원대학교)	
3:20-4:20	ChatGPT를 사용한 영어 교육 및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 (임경빈, 제주한라대학교)	사회자: (신은영, 순천대학교) 토론자: (황희정, 중원대학교)
	Translingualism and the Formation of Identities: A Duoethnography of Two Korean ELT Professionals in Higher Education (임재현, 대구교육대학교) (박지연, 서울시립대학교)	
	Does Majoring English at College Make any Differenc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English-major Students’ and non-English-major Students’ Comprehension Skills (박기찬, 해군사관학교)	
4:30-5:30	Special Session	
5:30-6:00	Closing Ceremony/ Research Ethics Workshop	

“Education 5.0”과 하이터치 하이테크

이혜진

(원광대학교)

This session focuses on Edutech 5.0 and the High Touch, High Tech approach, highlighting the transformative impact on English education with a synthesis of global and local insights. It examines how advancements such as generative AI and blockchain are revolutionizing EFL instruction through personalized, adaptive learning experiences. This session will particularly explore the role of blockchain-based digital badges in credentialing and the enhancement of teaching methods through large language models, illustrating a future where technology meets personalized education needs. This integration signifies a future where education is not only more responsive and tailored, but also transparent and globally recognized, empowering students and educators alike.

Author

Hyejin Lee, Ph.D., received her PhD in Foreign and Second Language Education from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and is currently an assistant professor at Wonkwang University.

Exploring Perspectives of Instructors and Learners on the Integration of AI-based Tools in L2 Classrooms

신유선
(순천대학교)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learners' and instructors' perceptions of AI-based technologies in higher education. 97 participants(learners: 61, L2 instructors: 36) participated in an online survey on academic integrity issues related to AI-based tools in educational settings. There were two research questions posed in the study. In the first question, five key factors were identified: attitudes toward AI-based tools, concerns about these tools, possible challenges, potential threats, and possible benefits. In relation to the second question, a one-way ANOVA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ptions concerning AI-based tools and potential threats, with learners and instructors showing distinct perspectives. Participants were keenly aware of the benefits and challenges of AI technologies, emphasizing the need for continuous training in their use. Consequently, in Korea, it calls for the development of flexible, culturally relevant guidelines that align with legal and regulatory standards, involving a range of stakeholders to ensure academic integrity. Research limitations and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further.

Author

신유선은 순천대학교 영어교육과의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영어평가, 영어 방법론, 제2언어 습득(SLA), 및 영미문화 등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연구는 주로 양적방법론을 활용 하여수행 중이며, 특히 영어평가에서 '동적평가(dynamic assessment)'를 주제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CAF 기반 토익 스피킹 대안모델 구현을 위한 기초연구: CAF와 토익 스피킹 점수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신순란
(부산대학교)

본 연구는 ‘복잡성(Complexity)’, ‘정확성(Accuracy)’, ‘유창성(Fluency)’(이하 CAF)기반 영어 말하기 능력 측정의 장점을 기반으로 기존 표준화 시험인 토익 스피킹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모델링 구현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토익 스피킹 점수와 CAF를 바탕으로 측정된 영어 말하기 점수와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능력에 따른 토익 스피킹 점수와 CAF간 점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또한 토익 스피킹 점수에 따른 그룹별 상·하 학습자들의 CAF 항목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총 29명의 대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여 영어 말하기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토익스피킹 점수에 따라 상·하 그룹으로 구분한 후 이들 그룹간 점수 차이는 Mann-Whitney U 테스트를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토익 스피킹 점수와 CAF 점수로 측정한 영어 말하기 시간 상관관계는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CAF 각 항목이 토익 스피킹 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회귀분석(regression)을 통해 살펴보았다. 토익 스피킹점수와 CAF기반 영어 말하기 능력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결과, TOEIC SPEAKING 점수와 CAF 간에 높은 상관 관계(.796, $p=.000$)가 나타났다. 특히, ‘복잡성’의 상관계수는 .735($p=.000$) , ‘유창성’의 상관계수는 .790($p=.000$)으로 TOEIC SPEAKING 점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정확성’의 상관계수는 .560($p=.002$)로 중간 정도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CAF 세 항목 중 원어민과 같은 발화속도와 머뭇거림이나 중단이 없음을 나타내는 ‘유창성’이 토익 스피킹 점수와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으며 이어 길고 복잡하게 발화 할 수 있는 능력인 ‘복잡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정확성’이 ‘유창성’이나 ‘복잡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을 보이는 이유는 연구 참여자의 토익 스피킹 평균점수가 토익 스피킹 총 11개 등급 중 7번째에 해당하는 IM2(Intermediate Mid)로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는 문제가 없음을 의미하기에 문법적 오류와 관련되는 정확성이 미치는 영향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토익 스피킹 점수와 CAF 하부 항목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복잡성’ 하부 항목인 1) 절(clause)의 개수/AS-unit 개수 2) 종속절의 개수/As-unit의 개수 3) type-token 비율 중 절(clause) 점수가 .695로 토익 스피킹 점수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종속절점수가 .625로 두 번째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어휘 복잡성을 나타내는 TTR의 경우 토익 스피킹와는 반비례의 관계를 보였다. 토익 스피킹 점수와 ‘정확성’하부 항목 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무오류(error-free)절이 토익 스피킹 점수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621)를 보였으며 이어 어휘오류(.278), 생략오류(.239) 및 연어 오류(.208)의 순서로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유창성’ 구성 항목인 분당 음절 수는 .760으로 토익 스피킹 점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분당 휴지의 빈도는 .309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토익 스피킹 점수를 기준으로 구분한 상·하 그룹 간에도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 상·하 그룹 모두에서 CAF기반 영어 말하기 능력과의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상 그룹, .590, $p=.026$, 하 그룹,

.047, $p=.133$)를 보였으나 하 그룹에서는 $p=.13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아니었다. 상 그룹에서 '복잡성'이 가장 높은 상관 관계(.606, $p=.022$)를 보인 반면 하 그룹에서는 '정확성'이 가장 높은 상관 관계(.456, $p=.088$)를 보였다. 토익 스피킹 점수로 구분한 상, 하 그룹별 간 CAF 하위 항목 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 그룹에서는 '복잡성' 항목 중 절(clause)점수가 토익 스피킹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하 그룹에서는 종속절의 점수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TTR는 상, 하 모두에서 관련성이 없었다. '정확성'의 경우, 상 그룹에서는 언어오류가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으며 이어 무오류절, 어휘 오류 순으로 관련성이 있었으며 하 그룹에서는 무오류절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어 수일치 오류, 생략 오류 의 순으로 관련성을 보여 상, 하 그룹에 따른 상이한 관련성을 보였다. '유창성'의 경우 상, 하 그룹 모두에서 분당 음절수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휴지의 빈도는 상, 하 모두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CAF를 기반으로 측정한 영어 말하기 능력이 TOEIC SPEAKING 점수에 미치는 설명력을 평가하기 위해 토익 스피킹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CAF로 측정한 영어 말하기 능력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 CAF를 기반으로 한 영어 말하기 능력이 TOEIC SPEAKING 점수에 63.1%($F=46.09$, $p=.000$)의 설명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TOEIC SPEAKING 시험이 CAF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개별 CAF 항목 회귀 분석 결과, '유창성'이 가장 강한 설명력을 보였으며(62.5%, $F=44.96$ $p=.000$), '복잡성'이 그 다음으로 강한 예측력을 보였고(54.6%, $F=31.64$ $p=.000$), '정확성'은 가장 약한 예측력을 보였다(10.4%, ($F=3.14$ $p=.088$)). 상·하 그룹 간에도 통계적 차이가 있었으며 상 그룹은 34.3%($F=6.25$, $p=.028$)의 설명력을 보인 반면 하 그룹에서는 16%($F=2.46$, $p=.140$)으로 약한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CAF를 기반으로 측정한 높은 영어 말하기 능력을 가진 학습자가 더 높은 TOEIC SPEAKING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uthor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영어학을 전공한 박사수료생 **신순란**입니다. 저의 연구관심분야는 사회언어학과 교육분야로 특히 영어 말하기를 중심으로 영어말하기와 어휘, 영어 말하기와 정의적 관계, CAF와 영어 말하기 관련성 등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영어 말하기와 관련된 좀 더 다양하고 깊이있는 연구를 하고자 바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할 제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국대학생들의 입학과 졸업 및 취업에서 중요한 국제공인 영어 말하기 시험인 토익 스피킹과 90년대 이후 L2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온 언어의 '복잡성', '정확성', '유창성'(이하 CAF)과의 공인타당성(concurrent validity)분석을 통해 표준화 시험인 토익 스피킹 시험을 CAF로 대체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토익 스피킹 점수를 기준으로 구분한, 상, 하 그룹에서의 CAF 항목의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대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능력에 일조하는데 있습니다. 연구결과 CAF기반 영어 말하기 능력과 토익스피킹 점수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CAF기반 영어 말하기 능력이 토익 스피킹 점수에 미치는 예측력은 63.1%로 나타났기에 CAF기반 영어 말하기 능력이 토익 스피킹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근거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 교사들은 통사, 어휘, 문법 뿐 아니라 음성학적인 면에

서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를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지도 할 수 있을 것이며 학생 개개인의 필요나 부족한 부분을 원활히 파악하여 효과적인 영어 말하기 지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shinwill@naver.com

YouTube 동영상 및 댓글에 나타난 영어 학습자의 말하기 불안감

안수진

(전주교육대학교)

본 연구는 영어 학습자가 가진 말하기 불안감이 YouTube 동영상 및 댓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린 시절 콩고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한 대학생 영어 학습자가 이태원에서 영어로 과업을 수행하는 한 편의 예능 동영상 및 그에 대한 81개의 댓글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비판적 담화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및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이 적용되었다. 분석 결과, 동영상에서는 학습자가 명시적인 언어로 영어 말하기 불안감을 표현하는 모습이 다수 발견되었고, 손동작, 얼굴 표정 등의 비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영어 말하기 불안감을 표현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또한 학습자의 영어 말하기 불안감은 영상을 찍고 있는 제작진을 향한 질문 및 심정 호소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한편 댓글에서는 같은 영어 학습자로서 영상 속 학습자의 모습에 공감을 하거나 예능적 재미를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본 영상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예능 동영상은 영어 학습자의 말하기 불안감이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재생산되는지 보여주며, 동시에 다양한 영어 학습자들이 댓글을 통해 영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어교육 관련 영상 및 양방향적 의견 교환이 가능한 소셜 미디어의 영어교육 및 영어 교사교육에서의 활용에 대한 함의점을 논의한다.

Author

안수진은 전주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영어 교사 교육, 언어와 정체성, 영어 쓰기교육, 컴퓨터 보조 언어학습이다.

soojina@jnue.kr

Iatrogenic Errors

신은영
(순천대학교)

Iatrogenic refers to something that is "caused by medical examination or treatment." The term finds its etymological roots in the Greek words *iatros* (pertaining to physicians) and *genic* (pertaining to production and creation). So, it denotes adverse effects or complications resulting from medical interventions or prescribed treatments.

Iatrogenic errors in English education or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efer to mistakes or unintended negative outcomes that arise as a result of instructional practices, methodologies, or interventions in the context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or the acquisition of a second language. These errors may manifest in various forms, such as misconceptions about language rules, ineffective teaching strategies, or misleading grammatical terms.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iatrogenic errors are crucial in improving the efficacy and quality of language education programs, ensuring that learners receive accurate and beneficial guidance in their language learning endeavors.

Iatrogenic errors in the domain of English education or second language acquisition may include an overemphasis on grammar rules at the expense of meaningful communication, reliance solely on translation methods which hinder the development of fluency and natural language use, ineffective pronunciation instruction leading to persistent mispronunciation habits, inadequate incorporation of cultural context resulting in misunderstandings or insensitivity, overcorrection of errors causing learner frustration and inhibition, and inflexible teaching methods that fail to accommodate individual learner needs and preferences. Addressing iatrogenic errors necessitates a nuanced understanding of language teaching principles and methodologies, coupled with ongoing reflection and adaptation by educators to ensure that instruction fosters holistic language acquisition and proficiency among learners without hurting accuracy.

Author

Associate Professor Shin Eunyoung is a faculty member in the English Education Department at Sunchon National University. With a specialization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her instructional focus encompasses English Grammar Pedagogy, Multimedia Pedagogy, and English Composition Teaching, where she

navigates the intersection of theory and practice to cultivate effective language learning environments.

이메일: shiney@scnu.ac.kr

연락처: 061-750-3323

플립러닝이 영어 능력별 중학생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

전준탁

(강원대학교)

세상이 급변하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학교에서는 패드나 탭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학생 수에 맞게 비치하고 그 활용도를 많이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통적인 교육법으로 수업하는 교사들이 많고 이에 익숙한 학생도 많다. 본 연구는 기존 수업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플립러닝을 주제로 삼아 이 교수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아보았다. 플립러닝의 시스템은 학생들이 영상을 통해 학습 내용을 미리 예습 후 실제 교실에서는 토론, 모둠, 토론 활동 등 조금 더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교사의 피드백과 함께 추가적인 과업도 하는 새로운 학습 방식이다. 이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유도하고 배우고자 하는 내용을 훨씬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과연 실제 학생들은 어떠한지 60명의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와 동기부여에 대한 플립러닝의 유의미성을 실험하였다. 이 실험에서 눈여겨볼 점은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검증을 했다는 것이다.

30명씩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나누고 그 집단 내에서 사전검사를 통해 10명씩 상/중/하로 그룹을 나누었다. 5주간 15차시의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전체 실험 전과 실험 후에 플립러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5차시 수업 중에 세 차례에 걸쳐 학업 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파악하였다. 통계는 SPSS 프로그램의 독립표본 t-검정 및 대응표본 t-검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통적 교수법에 비해 플립러닝을 활용한 실험집단에서 평균 점수가 소폭이지만 1차에서 3차 평가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동기부여의 측면에서는 설문지의 플립러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평균값이 증가하였으나 수치상으로 유의미함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학생들의 능력별로 봤을 때는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보다 오히려 하위집단에 있는 학생들에게서 학업성취도와 동기부여, 두 영역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험을 통해 영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에게 플립러닝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지만 아쉬운 점은 그 수치가 아주 높지 않다는 점이다. 더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령대로 연구한다면 통계적으로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사들은 플립러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하여 각각의 교실 상황에 맞게 수업모형을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길 바란다.

Author

저는 공주사범대학교에서 영어교육학을 전공하고 강원대학교 영어과에서 석사과정을 거쳐 24년에 박사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효율적 영어 교육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jjtzz2@naver.com

ChatGPT를 사용한 영어 교육 및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

임경빈

(제주한라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OpenAI에 의해 개발된 언어 모델인 ChatGPT의 영어 교육 및 학습 잠재력을 탐구하고, 영어 학습에 적절히 사용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 연구는 먼저 ChatGPT를 사용한 영어교육 관련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들을 ChatGPT에 실제로 적용하여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고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 환경에서 언어 및 내용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들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영어 기능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각 기능에 대해 ChatGPT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방법들을 ChatGPT에 적용하여 테스트하였다. 테스트 해본 결과는 ChatGPT를 영어 학습에 사용할 가능성을 제안하기 위해 분석해 보았다. 요약하자면,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ChatGPT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매우 다양한 능력을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tGPT가 영어 교육 및 학습에 활용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와 사용 방법은 이 연구의 결과 부분에 보고되어 있다.

Key words: ChatGPT, English teaching and learning, EFL, AI

주제어: 챗지피티, 영어 교육과 학습, 외국어로서의 영어, 인공지능

Author

-University of Leeds (U.K.) TESOL 박사

-현)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현) 글로벌 영어교육학회 정보이사

-E-mail: imkb@daum.net

Translingualism and the Formation of Identities: A Duoethnography of Two Korean ELT Professionals in Higher Education

Jae-hyun Im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 Yeon Park

(University of Seoul)

English teacher identity research has been often discussed through the lens of native versus nonnative-English-speaking teachers, against which translanguaging is suggested as a counternarrative approach. Utilizing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ntersection of translingualism and duoethnography, this study illustrates the identity formation of two Korean researchers who seek translingualism. The selected dialogues regarding English language teaching (ELT) issues demonstrate how the authors' translanguaging instinct and mindset are realized in the context of researching, teaching, using, and probing translinguistic identity. The discussion portrays their realization of identities shuttling between "translinguist" and "translanguager" in individual and collective spaces. The study suggests pedagogical implications for language teachers, teacher educators, and researchers, as well as methodological implications for those considering using duoethnography for exploring translinguistic identity. The study contributes to an emerging discussion on what it means to transform ELT in higher education by acknowledging the translinguistic identity among English language learners, teachers, teacher educators, and researchers.

Keywords: Duoethnography, Translinguistic identity, Teacher identity, English language teaching, Translanguager, Translinguist

Authors

1. Jae-hyun Im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translanguaging, teacher identity, and discursive psychology. His recent publications can be found in *Applied Linguistics Review*, *Education as Change*, and *Journal of Language, Identity, and Education*.
imjaeh@dnue.ac.kr

2. G Yeon Park is a University Lecturer at the University of Seoul.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ranslingual practice among multilinguals,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ESL/EFL), academic writing, and literacy education in Rwanda.
parkgy123031@gmail.com

Does Majoring English at College Make any Differenc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English-major Students' and non-English-major Students' Comprehension Skills

Kichan Park

(Republic of Korea Naval Academy)

English (or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used to be regarded as a major that was worth studying in Korean colleges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because it was believed that majoring English would be helpful for improving English skills. However, these days, the popularity of English as a major has been declining, and the number of English Department has been decreasing. One of the reasons for these recent phenomena may be some doubt about the effectiveness of majoring English on the development of students' English skills in the Korean college context in which not only English-major students but also many non-English-major students make lots of efforts to learn English for their future careers. To resolve this doubt, this longitudinal study compares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English-major and non-English-major students' comprehension skills shown in their TOEIC scores that were annually obtained over four years. A series of analyses found that although both groups of students significantly improved their English comprehension skills during their four-year study at a college, intermediate learners who majored English achieved greater improvement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major English. Based on these findings, we suggest that majoring English indeed makes a noticeable difference in students' English skills.

Author

Kichan Park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English at the Republic of Korea Naval Academy. He obtained a PhD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t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Second Language Processing, Language Assessment and Task-Based Language Teaching.

park@navy.ac.kr

Concurrent Session 2 (좌장: 김정덕, 국립안동대학교) 409호

Time	Session 2	Moderator /Discussant
10:00-11:00	The IRE/IRF Sequences as Productive for Facilitating Students' Speaking (허선민, 충북대학교)	사회자: (김윤정, 경남대학교) 토론자: (김정덕, 국립안동대학교)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언어, 사회/문화 정체성과 영어 패쇄음 발화 VOT 관련 연구 (이향미, 부산대학교)	
	QuizN: A Promising Gamification Tool for Enhancing Vocabulary Learning in EFL Classes (이유화, 서영주, 국립안동대학교)	
11:10-12:10	Keynote Speech	
12:10-1:10	Lunch Break (217호)	
1:10-2:00	Plenary Sessions	
2:10-3:10	학습자 선천지능에 의거한 영어 학습 지도 방법 (한상호,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사회자: (서보람, 광주교육대학교) 토론자: (허선민, 충북대학교)
	평가 주체로서 학생의 가능성과 문제점 (백지원, 대구대학교) (최재호, 상명대학교)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디지털 영어 교육 대전환 (서재웅, 부산마케팅고등학교) (이혜진, 원광대학교)	
3:20-4:20	AI 챗봇이 초등영어학습자의 영어 성취수준 및 정의적 요인에 미치는 효과 (양재석, 대구교육대학교)	사회자: (서미교, 부산대학교) 토론자: (육청민, 한림대학교)
	영어 수업 즐거움이 중학교 영어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김고은, 진안중학교) (최선희, 전주대학교)	
	An Analysis of Young Korean EFL Learners' Receptive Knowledge of Different Types of Collocations in Aural and Written Modes (박소담, 윤현숙, 한국외국어대학교)	
4:30-5:30	Special Session	
5:30-6:00	Closing Ceremony/ Research Ethics Workshop	

The IRE/IRF Sequences as Productive for Facilitating Students' Speaking

허선민

(충북대학교)

Typically,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an approach where the teacher holds most control and directs the classroom interactions is seen as counterproductive. This setup limits students' chances to practice speaking and express their own thoughts effectively. Some scholars suggest alternative interaction methods, such as IDE sequences, to broaden the scope beyond traditional IRE/IRF formats. However, recent studies have primarily focused on these formats in writing and teacher feedback, neglecting the potential benefits of teacher-centered IRE/IRF for speaking skill development. Thus, further investigation is necessary to explore how such interactions can enhance learning opportunities, particularly in speaking classes for low-intermediate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aims to delve into the ways in which teacher-dominated IRE/IRF interactions facilitate learning in speaking classes. A case study research approach was employe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ominant interactions of two professors and the achievement of students' learning objectives in their speaking classes. Over a period of four weeks, comprising 36 hours, six speaking classes conducted by two native English-speaking professors were observed and recorded on video.

To highlight one important finding, a teacher, Jane focused on the topic of family in her teaching unit with the aim of fostering authentic language usage and enhancing students' communication abilities. To realize these objectives, Jane employed her IRE/IRF sequences to assign tasks to students aimed at encouraging them to converse using more natural, colloquial English. In one instance, Jane demonstrated to her students how to inquire about family matters and exemplified how to engage in genuine conversation by asking follow-up questions.

(...)

01 Jane: (showing the slide with the discussion questions) The topic for this week is family. We're gonna do some speaking activities. I am gonna give you some questions to talk about in groups. (Read the questions)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And follow-up questions. How many cousins do you have? And follow-up questions. Do you live with your family? And follow-up questions. Which sounds better to you- being an only child or having lots of brothers and sisters? Why? So, here are some conversation questions? I wanna do an example with the follow-up questions. So, Student 3, can you ask me

question #1, please?

02 Student 3: Question 1? 03 Jane: Just ask me.

04 Student 3: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05 Jane: Yes, I do. I have one brother and one sister. Now, can you ask me a follow-up question? A connected question?

06 Student 3: How many cousins do you have?

07 Jane: No, can you ask me about my brother and sister? 08 Student 3: Ah!

09 Jane: Yeah, yeah.

10 Student 3: What's your brother doing these days?

11 Jane: Umm, my brother, he's living in London. He's working in a call center?

12 Student 3: Umm.

13 Jane: Can you ask another follow-up question? Same kind of thing? 14 Student 3: Ah (struggling)

15 Jane: Maybe ask about my sister? Maybe more about my sister? 16 Student 3: Then, what's your sister doing these days?

17 Jane: Um, my sister is working as a computer programmer. She's in Australia. Ok, ok. Thank you! This is the example of the follow-up questions, ok? So, if someone tells you they have brothers, then ask them about their brothers. Just ask more questions, ok?

(...)

Jane's initiation prompted Student 3 to generate these follow-up questions. Jane instructed Student 3 on the concept of follow-up questions and demonstrated how he could formulate them. This serves as an illustration of the teacher-centered/directed IRE approach as a mechanism for fostering students' engagement in speaking activities.

Including this example, the teacher-dominant IRE/IRF sequences as productive moments for students' learning of speaking will be shared. Educational implications will follow.

Author

Dr. Huh, Seonmin got her Ph.D. from the school of education,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and is majored in literacy education. Her research areas include critical literacies, critical pedagogy, EFL literacy education, multi-modal literacies and EFL-related English instructional issues, such as ChatGPT and classroom discourse. She is currently works f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buk, Korea.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언어, 사회/문화 정체성과 영어 폐쇄음 발화 VOT 관련 연구

이향미

(부산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언어 정체성, 사회/문화 정체성에 따라 구분된 두 그룹과 영어 원어민의 영어 폐쇄음의 VOT차이 살펴보고자 한다. 총20명의 한국인 영어 학습자와 10명의 영어 원어민이 참여하였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는 언어정체성, 사회/문화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영어 폐쇄음의 VOT를 측정하기 위해 영어 폐쇄음 단어를 음성 녹음하였으면 원어민도 영어 폐쇄음 단어를 음성 녹음하였다. 일원배치분산 분석으로 세 그룹의 영어 폐쇄음 VOT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무성 양순 폐쇄음 /p/, /t/, k/와 /s/를 뒤따르는 무성 양순 폐쇄음 /p/, /t/, k/에서 영어 정체성이 높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경우 원어민과 비슷한 VOT 값을 보여주었지만 영어 정체성이 낮은 학습자의 경우 원어민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나이'가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영어 정체성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과 영어 원어민들의 영어 폐쇄음 VOT 차이를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영어 학습자들의 언어 발음 차이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uthor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박사 수료 후 연구생 **이향미**입니다. 저의 전공은 응용언어학이며, 학습자들의 정체성과 관련한 제2 언어 습득에 관한 연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발표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메일:faral9@naver.com

QuizN: A Promising Gamification Tool for Enhancing Vocabulary Learning in EFL Classes

이유화

(국립안동대학교)

서영주

(국립안동대학교)

This research explores how incorporating gamified educational technology activities, specifically using QuizN, impacts vocabulary improvement and examines language learners' attitudes towards them in college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 reading classes. By integrating game elements such as competition and rewards, the goal is to make learning vocabulary enjoyable and encourage active engagement among learners. The study focuses on freshmen in general English courses to assess the effects of gamification on vocabulary achievement, motivation, and class satisfaction. Pre- and post-test scores were compared between two groups using statistical analysis. Additionally, survey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31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amification class. Findings suggest that both groups improved their scores over time due to continued exposure to texts. Qualitative analysis of open-ended questions and interviews revealed that the QuizN gamification environment boosted students' motivation to learn vocabulary and their satisfaction with the activitie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vocabulary achievement between the two groups during the short experimental period. Nonetheless, integrating gamification via smartphones as educational technology for college students offers a promising avenue for modern EFL teaching and learning. The study provides recommend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in this area.

Authors

주저자 : **Lee Yuwha**

Yuhwa Lee is a Lecturer at Andong National University,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various teaching methods: PBL, TBLT, flipped learning, and technology-based SLA.

공동저자: **Seo Young-joo**

Youngjoo Seo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Andong National University,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language ideology, teacher identity, and critical language

pedagogy. Her major academic publications have appeared in Applied Linguistics Review, Language, Culture and Curriculum, English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lingualism,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and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학습자 선천지능에 의거한 영어 학습 지도 방법

한상호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해와 달(日月, 陰陽) 그리고 오행성(五行)의 기운을 몸에 품수받아 이를 체(體)로 삼아 평생 활용하며(用) 살아간다 (生長成藏, 生藏收藏, 三顯一藏의 순환과 반복 속에서). 오행의 기운은 아기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와 탯줄이 잘리는 순간 심장에서 피가 한 바퀴 순환하게 되는 46초 동안 60갑자 기운의 형식으로 아기의 연월일시의 네 기둥(四柱)에 장착된다. 각 기둥은 하늘의 기운(氣)과 땅의 기운(質) 간의 보이지 않는 음양의 작용으로 연결된 간지체의 모습으로 구성되는데 네 기둥 또한 보이지 않는 음양오행의 생극제화(生剋制化)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하나의 전체로서의 소우주체로 형성되어 자전과 공전을 한다. 이 전체로서의 네 기둥 여덟글자를 사주팔자(四柱八字)라고 하며 이 사주팔자 속에는 아기의 선천지능(Apriority Intelligences)이 품수되어 있다.

아기의 선천지능(Apriority Intelligences)이 포함되어 있는 사주체(혹은 팔자체)를 언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촘스키의 UG와 같은 생득적인 구조에 다름이 아니다. AI의 개념은 UG보다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Gardner의 다중지능이나 MBTI의 16가지 심리유형이 들어있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 발표자는 여덟글자 속의 선천지능을 분석하여 유형화해 두면 아이의 양육과 학교교육, 진로 및 직업 선택의 과정에 참고할 수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동의 주가 되는 선천지능의 구성패턴에 따라 언어교육, 외국어교육의 언어자료와 내용 및 과업들을 구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발표의 제목을 ‘학습자 선천지능에 의거한 영어학습 지도 방법’이라고 설정하였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논의할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추후 연구참여자를 확보하는 대로 연구를 통해 학습자 선천지능 프로파일을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 지능 유형에 따른 영어학습 자료 구성, 의사소통 과업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사주체에 들어있는 선천지능의 모습(profile)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음양의 개념을 알아야 하고, 오행의 생극제화의 과정을 이해해야 하고, 사주의 주인공인 일간(태어난 날의 하늘 기운)이 나머지 일곱 글자와 시공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음양과 오행이 구현해 내는 십성(십신)의 가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음양, 오행, 십간십이지, 60갑자, 생극제화, 육신, 십신 등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십신(성)을 10가지의 선천지능으로 매칭함으로써 발표자가 제안한 연구로 초대해 보고자 한다.

1. 모든 동양학문의 기저에는 음양철학과 오행철학이 있다. 이 두 철학은 원래 서로 다른 전통이었으나 한나라 때부터 두 개념이 통합되어 음양오행론 혹은 음양오행 철학이라 불린다. 태극에서 음양이 나왔고 음양이 분화하여 사시가 나왔다. 태극이 음양이 되어도 태극은 사라지지 않고 음양이 사상으로 분화되어도 태극은 사라지지 않는다. 음속에 양이 있듯이 양속에는 음이 있다. 음양이 펼쳐지면 오행이 되는데 목화토금수 오행 또한 음양으로 존재

- 한다. 오행에 음양의 옷을 입히면 10개의 에너지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10천간이다.
2. 사주체의 구성을 살펴보면 각 기둥의 위와 아래인 천간(天干)과 지지(地支)에 갑자에서 계해까지의 60갑자 중의 하나가 자리잡게 되는데, 연월일시의 각 기둥은 조상(먼 과거), 부모 형제(태어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자신(현재), 자녀(미래)의 시공(時空)을 형성하며 사주 주인공의 소우주체를 구성한다.
 3. 천간(天干)의 네 자리에는 음양과 오행의 기운으로 배합되어 하늘에서 운동하는 에너지(氣)인 십천간, 즉 갑을의 목, 병정의 화, 무기의 토, 경신의 금, 임계의 수까지의 글자 중 하나씩 나타나게 된다.
 4. 지지의 12글자는 땅의 기운인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의 12동물로 알려진 12지지 중의 한 글자가 자리잡게 된다.
 5. 사주체는 연월일시 네 개의 간치체로 구성이 되는데 간지의 결합 방식을 보면 양의 간은 양의 지와, 음의 간은 음의 지와 결합을 하여 총 60개의 간지로 구성이 되며 이를 60갑자라 부른다.
 6. 세상의 기운은 음양의 2진법, 오행의 5진법, 십천간의 10진법, 12지지의 12진법, 천간지지의 60진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끊임없는 에너지의 생장소장의 과정이 반복되며 인간도 예외없이 그런 변화를 한다.
 7. 십천간에서 오행 작용하는 방식은 서로간에 생극제화 혹은 생화극제 하는 가운데 생장소장의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우리의 사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학습행위, 습득과정도 위 음양오행의 생극제화의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8. 오행의 상생과 상극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다시 목을 생한다. 또한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는데 이를 오행의 상극의 과정이라 한다. 하나 건너된 오행들 사이에는 서로 극하고 제하는 관계가 성립되는데 이 과정은 앞의 상생의 과정과 함께 끊임없이 반복된다.
 9. 천간의 10글자 사이에는 어느 한 글자를 기준으로 나머지 아홉 글자들과의 생과 극의 관계를 설정해 낼 수 있다. 이를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각 오행을 음양으로 구분하지 않고 목을 기준으로 나머지 사행과 생극관계를 따져 볼 수 있는데, 자신과 같은 오행을 比, 자신이 생하는 오행을 食, 자신이 극하는 오행을 財, 자신을 극하는 오행을 官, 자신을 생하는 오행을 印이라 칭한다. 자신을 포함하면 이 여섯은 六神이 된다.
 10. 이제 각 오행을 음양으로 펼쳐서 나머지 사행과의 생극관계를 끌어내면 10개의 다른 관계의 별을 그려낼 수 있다. (十星, 十神). 하나의 양의 오행을 기준으로 그 생극의 관계를 표시하여 보면 자산과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같으면 比肩, 자신과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다르면 劫財, 자신이 생하는 오행인데 음양이 같으면 食神, 자신이 생하는 오행인데 음양이 다르면 傷官, 자신이 극하는 오행인데 음양이 같으면 偏財, 자신이 극하는 오행인데 음양이 다르면 正財, 자신을 극하는 오행인데 음양이 같으면 偏官, 자신을 극하는 오행인데 음양이 다르면 正官, 자신을 생하는 오행인데 음양이 같으면 偏印, 자신을 생하는 오행인데 음양이 다르면 正印이라고 한다. 일간과 지지의 각 글자들과의 사이에도 십성을 도출해 낼 수 있다.
 11. 전통 명리학에서는 이 십성을 가지고 사람의 가족관계, 사회관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선천

지능이론에서는 이를 10가지 지능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선천 지능은 모두 10개로 구성되는데 자존지능(비견), 경쟁지능(겉재), 연구지능(식신), 표현지능(상관), 평가지능(편재), 설계지능(정재), 행동지능(편관), 도덕지능(정관), 사고지능(편인), 수용지능(정인)의 10가지이다.

12. 이 10가지 지능은 진화심리학적으로 설명되는 인간의 10가지 본능으로도 설명되는데 육감본능(비견), 경쟁본능(겉재), 생산본능(식신), 창조본능(상관), 개발본능(편재), 소유본능(정재), 서열본능(편관), 결정본능(정관), 기록본능(편인), 모성본능(정인)이 그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선천지능이론과 영어학습과의 관계를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 풀을 구성해 보기 위해 사주명리학의 십성과 선천지능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소개하였다.

Author

한상호 교수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한국교원대 대학원 영어교육학과에서 영어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1996). 1996년 박사학위 취득 후 경주대학교 관광영어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20년 제 2의 학문적 삶을 개척하기 위해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동양학과에 편입하여 2021년 8월 졸업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조기졸업을 하였다. 동양학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2022년에 대학에서 조기퇴직을 하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박사과정에서 명리진로상담을 전공하고 있다. 학회활동으로는 KOREA TESOL 회장(1999-2000), 팬코리아영어교육학회 회장(2012-2013)을 역임하였고 한국영어교육학회 부회장, 한국외국어교육학회 이사로 활동하였다. 주요 논문으로 「한국아동의 영어학습과정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국제어로서의 영어교육과 달인으로서의 영어교사」, 「영어교육 연구와 실천의 불이적 세방화 논의」, 「초심영어지도법의 접근방법, 교수학습-설계, 수업절차에 관한 연구」, 「명리학과 양자역학을 통해서 본 행복한 부자의 삶」등이 있다. 현재 명리학과 영어교육학과의 불이적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중이며 사주명리학의 국제화를 위해 명리학 학술용어와 고전의 주요 표현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박사논문을 집필중에 있다.

평가 주체로서 학생의 가능성과 문제점

백지원

(대구대학교)

최재호

(상명대학교)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 등은 학생이 수업에서 주체적인 참여를 가능케 하여 상당한 교육적 가치(pedagogic value)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효과성이 입증되는 경우 교사의 업무 강도를 일정 부분 줄여줄 수 있다(Patri 2002). 2022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공통 영어 및 선택 영어 과목에 공통으로 평가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평가 준비, 시행, 결과 해석 과정에 적극적으로 학습자를 참여시킨다. 학습자를 평가의 주체로 인정하면서 함께 평가를 계획하고 기준을 수립한다. … 또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학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의 영어 학습을 성찰하고 향후 학습 방향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별책 14 영어과 교육과정, p. 78). 이는 학생 스스로 평가의 주체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이 평가에 주체가 된다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문제점 및 그 해결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Cheng과 Warren(2005)은 학부 학생들의 세미나, 발표, 리포트 과제에서 동료의 언어 능숙도 및 언어 외적인 면을 평가하는 연구를 하였고, 이희경과 김진희(2009)는 영어 말하기 능력 평가 가능성을 자기평가와 동료 평가, 교사 평가를 비교하였으며, 박정애와 박주용(2019)은 동료평가 정확도 향상 방안을 비교하였다. 이 외에도 학생들이 평가자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여러 연구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사범대 영어교육과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논술에 대한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교사 평가 점수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고, 앞으로 교실 현장에서 학생들이 평가의 주체자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학생 스스로는 학생들이 평가에 참여하는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인터뷰를 통해 탐색하였다. 이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요소를 결합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고 다음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교수 평가 결과는 얼마나 유사한가?
2.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에서 학생들의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본 연구에 사용된 쓰기 평가를 위한 채점표는 5개 평가 영역(구성, 내용, 문법, 어휘, 구두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채점 척도는 1에서 5단계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학생들은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평가 영역 및 평가 척도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연구자 중 한 명이 학생들의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문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교실에 머물렀다. 학생들은 자신이 제출한 영작문과 이름이 명시되지 않고 숫자만 표시된 동료의 영작문을 받았다. 따라서 동료 평가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누구의 글을 채점하는지를 알 수 없었으며, 자신의 글을 평가한 동료가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평가 점수를 받았는지 알지 못했다. 평가가 끝난 즉시 개인적으로 연구자에게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채점지와 영작문도 동시에 제출하였으며, 학생들의 평가 시간은 일정하게 제한하지 않을 상태에서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인터뷰는 반구조화(semi-structured)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은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0명으로 모두 4학년 학생이었다.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인터뷰는 개별 혹은 그룹으로 진행되었다. 개인 인터뷰는 대략 40분, 그룹 인터뷰는 5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되었다. 강의를 담당한 교수자와의 인터뷰도 진행되었지만, 교수의 평가 경향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만 사용되었고, 학생들의 인터뷰 전사 자

료만 질적 분석에 사용되었다.

채점 결과는 교수 평가와 자기 평가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고, 교수 평가와 동료 평가 점수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 점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교수 평가에 비해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 결과가 후하게 나타났다. 교수 평가와 자기 평가 혹은 동료 평가 사이의 점수 차이는 구성, 내용, 문법, 어휘 4가지 항목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구두점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자기 평가, 동료 평가 및 교수 평가 t -검정

	N	평균	평균 차이	t 값	유의확률(p)
교수 평가	23	3.748	-.417	-2.982	.007
자기 평가	23	4.165			
교수 평가	23	3.757	-.530	-3.923	.001
동료 평가	23	4.287			
자기 평가	22	4.182	-.082	-.672	.509
동료 평가	22	4.264			

연구 문제 2에 해당하는 질적 분석의 결과로는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의 채점 경향은 학생들이 느끼는 전문성 부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 평가보다 동료 평가가 후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영어교재연구및지도 과목의 동료 평가 경험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의 점수에는 동의하지만, 동료의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었던 경험이 다른 학생들의 영작문을 채점하는데 후한 점수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된 것으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이 경험에 대한 저항이 없는 경우는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모두 채점 표에 의거,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였다고 말하였다. 제일 어려움을 느낀 평가 항목으로는 문법이나 어휘 항목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이는 평가자로서 자신의 전문성 부족을 잘 느끼게 해주었다고 이야기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한 교육적 함의로는 학생이 평가자로서 참여하는 것에는 가능성 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이 부각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영어 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채점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교수자와 학생들의 평가에서 보이는 유의미한 차이는 구두점과 같은 항목을 제외한 문법, 어휘 등의 영역에서는 학생들의 언어 능숙도 문제로 평가자로서의 신뢰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단시간에 훈련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되기에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 박정애, 박주용. (2019). 동료평가 정확도 향상 방안의 비교: 평가 기준에 대한 학생들 간 토론 대 전문가 평가 사례 제시. *인지과학*, 30(4), 175-197.
- 이희경, 김진희. (2009). 영어 말하기 능력의 다집단 교실 평가 가능성에 대한 연구-자기, 동료, 교사평가를 중심으로. *영어교육연구*, 21(4), 241-264.
- Cheng, W., & Warren, M. (2005). "Peer Assessment of Language Proficiency." *Language Testing*, 22(1), 93-121.
- Patri, M. (2002). "The Influence of Peer Feedback on Self- and Peer-assessment of Oral Skills." *Language Testing*, 19(2), 109-131.

Authors

백지원

대구대학교 영어교육과, paek@daegu.ac.kr

대구대학교 영어교육과에서 예비 영어 교사 교육을 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주제는 영어 글쓰기 수업에서의 피드백 연구와 예비 교사 전문성 신장 및 방과후 영어교육에 관심이 있다.

최재호

상명대학교 영어교육과, 21clearn@smu.ac.kr

상명대학교 영어교육과에서 예비 영어 교사 교육을 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주제는 디지털기반 영어교육, 영어 의사소통의지, 디지털교과서 등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반 교육 실천을 위한 교사의 역량이나 인식, 태도의 탐색 및 교사 역량이나 인식, 태도 탐구 및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디지털 영어 교육 대전환

서재웅

(부산마케팅고)

이혜진

(원광대)

This session explores the transformative role of generative AI in digital English education, highlighting how it can redefine learning experiences and pedagogical methods. Generative AI, leveraging models like GPT and BERT, is not merely a technological upgrade but a paradigm shift in educational practices. It enables personalized learning pathways by adapting content to individual proficiency levels and learning styles, making education more accessible and effective. We will also discuss strategies for effectively integrating AI tools into existing educational frameworks to maximize benefits. The session will cover the integration of AI into existing educational frameworks, offering strategies to harness its benefits effectively.

Authors

Jaewong Seo earned his B.A. in English Education from Wonkwang University and is currently a teacher at Busan Marketing High School.

Hyejin Lee, Ph.D., obtained her PhD in Foreign and Second Language Education from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and currently serves as an assistant professor at Wonkwang University.

AI 챗봇이 초등영어학습자의 영어 성취수준 및 정의적 요인에 미치는 효과

양재석

(대구교육대학교)

최근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AI 챗봇은 학습 도구로서 다양한 잠재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상업용 음성비서로서 구글음성비서나 빅스비, 시리 등과 같이 실생활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챗봇은 대중화되고 있으며, 교육을 목적으로도 설계되어 학습 도구로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Fryer & Carpenter, 2006). AI 챗봇은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음성 합성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된 대화형 에이전트로서, 인간과 유사한 대화를 통해 상호작용하며, 학습자들이 직면한 학습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실제 인간의 대화는 복합적 언어 활동이라는 점과 대화자들 간 상호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 수반되는 것처럼 아직은 챗봇이 완벽하게 그 역할을 전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양재석,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교육을 위한 도구로써 챗봇은 다양한 장점이 있다. 예컨대, 학습자들은 수업시간 이외에도 스스로 말하기 연습을 통해 발화 기회를 얻거나, 수업에서 배운 표현의 복습, 챗봇과의 대화문을 검토하여 자기 성찰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Fryer & Carpenter, 2006). 특히 동료나 교수자와 같이 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안감, 체면 유지와 같은 정의적 측면의 제한점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김민지 외 3인, 2021), 영어 학습자의 영어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다(Kanda & Ishiguro, 2005). 기존의 문자 기반 챗봇은 최근 들어 음성인식 및 합성 기술의 고도화, 확장형 도구(add-on)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보급으로 문자와 음성으로 언어입력 및 출력이 가능해지면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영역을 포함한 학습 도구로서 다양한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이동한, 2019). 무엇보다도 챗봇의 주요기능이 대화형 에이전트기 때문에, 외국어로서의 영어인 EFL환경과 같이 학습자의 영어 사용을 통한 상호작용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Wang et al. 2017; Xu, 2020),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대화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의사소통의지를 유지하여(Ruan et al, 2019), 궁극적으로 학습자에게 영어 사용의 기회와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잠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ChatGPT와 같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한 언어 학습 시스템의 경우, 학습자들에게 표현의 다양성과 실제적인 예시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텍스트와 대화를 생성함으로써, 학습자들은 다양한 문장 구조, 어휘, 그리고 관용 표현에 노출되어 언어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Kasneci et al., 2023). 뿐만 아니라 대화형 챗봇이나 지능형 개인비서(Intelligent personal assistant)의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학습자들과 대화하며, 학습자들이 목표 언어로 말하고 쓰는 것을 연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학습자의 발화나 발문에 대한 피드백과 언어적 지도를 제공하거나,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 수준과 관심사에 맞춰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같이, 학습자 다양성에 대한 요구에 맞게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

능성이 있다. 자기주도성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거나, 학습 내용과 진행 정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모든 학습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결정과 판단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학습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Holec, 1981). 이런 점에서 학습자 스스로의 학습과 학습과정에 활용되는 AI챗봇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요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Lan, 2018; Haristiani & Rifai, 2021).

우리나라 교육에서 AI기술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제 학습자가 AI기반 도구인 AI챗봇을 영어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실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교육과정 설계에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필요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AI챗봇 활용이 초등학생들의 영어 성취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이들의 의사소통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AI챗봇이 학습자 다양성에 대한 요구에 맞게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주도적 학습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언어불안감, 학습동기 등과 같은 정의적 요인에 초점이 주를 이루었다는 측면에서 자기주도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챗봇 활용을 통해 성인 학습자의 영어 능력에 대한 향상도를 조사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초등 학습자들의 영어 성취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데 연구 가치와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구지역 초등학교 1곳을 선정하여 5학년을 50명 학습자들 대상으로 각각 실험반과 대조반으로 구성한 뒤, 실험반을 대상으로 챗봇기반 수업을 수행하고 영어 학업 성취도, 자기주도성, 의사소통의지를 사전 및 사후 조사하였다. 대조반의 경우 챗봇을 활용한 활동 대신 일반적인 수업방식이 교사 및 동료 활동으로 진행된다. 실험반의 수업내용은 대조반의 학습목표 및 성취기준을 토대로 동일하게 진행되며, 학습활동이나 과제의 형식이 태블릿 PC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챗봇을 활용한 활동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수집된 연구자료의 분석 결과, 실험반과 대조반에서 영어 학업 성취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자기주도성 및 의사소통의지에는 유의미한 차이로 실험반이 높게 나타났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초등영어교육 현장에서 챗봇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학습자 활용양상과 인식을 토대로 교육적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uthor

Jaeseok Yang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at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technology-enhance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strategy, and teacher education.

yangjs@dnue.ac.kr

영어 수업 즐거움이 중학교 영어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김고은

(진안중학교)

최선희

(전주대학교)

이 연구는 중학교 학습자들이 영어 수업에서 경험한 즐거움이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학교 학생들이 영어 수업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데 기여하는 요인들을 탐구한다.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라북도의 247명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가자들은 영어 수업 중에 즐거움을 느꼈으나 그 수준은 높지 않았다. 둘째, 참가자들의 성별 및 영어 능력에 따라 영어 수업에서의 즐거움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중학교 학생들은 수업, 동료, 그리고 교사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어 수업의 즐거움과 동기 부여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영어 수업의 즐거움은 참가자들의 영어 학습 노력과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uthors

김고은, likeoto@hanmail.net

진안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중이며, 중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고 있다.

최선희, sunheech@jj.ac.kr

전주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직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제2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정서 요인, 측정 도구 개발, 교재 개발, 교사 교육이다.

An Analysis of Young Korean EFL Learners' Receptive Knowledge of Different Types of Collocations in Aural and Written Modes

Sodam Par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yunsook Yo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is an endeavor to measure and compare young Korean EFL learners' receptive knowledge of aural and written collocations. The study defines collocations as combinations of words whose frequency of co-occurrence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by chance. 80 Korean EFL learners (aged 11 to 12 years old)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were asked to complete aural and written receptive collocation tests that included different types (e.g., lexical vs grammatical collocations, congruent vs incongruent collocations, known-word-combinations vs unknown-word-combinations) of collocations extracted from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Textbook Collocation Lists". The tests included two different meaning-recall questions (i.e., collocations in context, collocation-only) and participants were asked to write down the meaning of the collocations after listening (in aural mode) or reading (in written mode) the collocations. For minimizing the testing effect, aural collocation tests preceded the written collocation tests. In addition, the study tried to understand how the participants perceived the aural and written form of collocations, with the help of semi structured interview and a set of questionnaires following the written collocation tests. The data of different modes of tests (i.e., aural, written, and contextualized, collocation-only) were analyzed based on different types of collocations (i.e., lexical vs grammatical, congruent vs incongruent, known-word-combinations vs unknown-word-combinations). The study would give implications on teaching different types of collocations for both aural and written collocational knowledge.

Authors

(1st presenter) **Sodam Park** is currently a PhD candidate in the department TESOL (English Education)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odam810@hufs.ac.kr

(2nd presenter) **Hyunsook Yoon**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i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syoon3@hufs.ac.kr

Concurrent Session 3 (좌장: 서영주, 국립안동대학교) 408호

Time	Session 3	Moderator /Discussant
10:00-11:00	Two Types of Indirect Written Corrective Feedback, Revision, and L2 Development (서보람, 광주교육대학교)	사회자: (한상호,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토론자: (홍광희, 영남대학교)
	ChatGPT를 활용한 영어글쓰기 피드백과 교사 피드백의 비교: 문법과 논리적 구성의 오류분석을 중심으로 (김지희, 경북대학교)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직접 및 간접 등급 함축 인식 비교 분석 (최정인, 부산대학교)	
11:10-12:10	Keynote Speech	
12:10-1:10	Lunch Break (217호)	
1:10-2:00	Plenary Sessions	
2:10-3:10	AI 이미지 생성기를 활용한 영어 교육 방안 연구 (황요한, 전주대학교)	사회자: (류미령, 부경대학교) 토론자: (백주현, 부산교육대학교)
	A Study on the Foreign Accents of Chinese English Learners (Yuying Kang, Datong University)	
	Patterns of Voice: A Model-Driven Analysis of Opinion-Based Argumentative Texts from Korean University Students (이영화, 선문대학교)	
3:20-4:20	IB PYP 프레임워크 기반 영어 수업이 초등학생의 읽기 능력과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문혜정, 봉학초등학교) (백주현, 부산교육대학교)	사회자: (이향미, 부산대학교) 토론자: (이혜진, 원광대학교)
	The Impact of Guilt and Shame on EFL Learners' Self-Assessment of English Proficiency: A Comparison between College and High School Students (김정아, 전남대학교)	
	EFL 영어발음 교육에 있어 초음파를 활용한 시각적피드백과 형태초점교수법의 영향 (이윤경, 경북대학교) (윤관희, 대구대학교)	
4:30-5:30	Special Session	
5:30-6:00	Closing Ceremony/ Research Ethics Workshop	

Two Types of Indirect Written Corrective Feedback, Revision, and L2 Development

Suh, Bo-Ram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While a large body of written corrective feedback (WCF) research has investigated the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feedback on second language (L2) development (see Bitchener & Ferris, 2012; Kang & Han, 2015), only a handful of studies have addressed the relative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indirect WCF (e.g., Ferris & Roberts, 2001; Robb et al., 1986; Suzuki et al., 2019). Furthermore, little is known regarding whether requiring L2 learners to rewrite their first draft following indirect WCF influences the effectiveness of feedback.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wo types of indirect WCF - coded and uncoded feedback - along with revision on L2 development. Eighty Korean EFL learners from five intact classes at a university participated in the study. Five classes were randomly assigned to a control group or one of the four experimental groups that differed in terms of (1) the type of indirect feedback provided (coded vs. uncoded) and (2) whether revision was implemented after the feedback session. The present study employed a pretest-posttest design with two treatment sessions. A written story-retelling task was used to measure development in learners' ability to use the target structure, the past counterfactual conditional. Results indicated that both coded and uncoded indirect feedback were effective in improving learners' ability to use the target structure compared to no feedback,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emerged between the two types of indirect feedback. Results also revealed that coded indirect feedback alone, even without revision, was effective in L2 accuracy development. However, uncoded indirect feedback appeared to have a more substantial effect on L2 development when followed by revision compared to when provided without revision. Implications are discussed in terms of theory, pedagogy, and research methodology.

Author

Email: boramsuh@gnue.ac.kr

Bo-Ram Suh (Ph.D., Georgetown University) is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at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er interests include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structed language learning, written

corrective feedback, cognitive processes in language learning, technology-mediate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teacher education, and research methodology in applied linguistics. Her research has appeared in such journals as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and *Language Teaching Research* and in books published by Cambridge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and De Gruyter Mouton.

ChatGPT를 활용한 영어글쓰기 피드백과 교사 피드백의 비교 : 문법과 논리적 구성의 오류분석을 중심으로

김지희

(경북대학교)

제2언어 연구에서 쓰기 분야에 관한 연구는 국제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터넷 통신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중요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진보로 인해 기계 번역기 및 인공지능 문법 교정 프로그램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글쓰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자의 오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ChatGPT를 활용한 영어글쓰기 피드백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ChatGPT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영어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ChatGPT가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ChatGPT가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피드백의 정확성과 효율성, 그리고 문맥 이해와 흐름 파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문법적 오류와 논리적인 구성의 오류를 ChatGPT가 분석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 결과를 교수자의 결과와 비교하여 문법 오류에 대해 피드백하며 ChatGPT의 교육적 활용 정도를 파악한다. 그 외 Self Feedback과 Peer Feedback 등의 결과도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피드백 방법을 모색한다.

영어 글쓰기에서의 오류 분석과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학자인 Ferris (2011)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 (1) 오류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들이 단기간에 언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 (2) 학습자들이 교수자의 피드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글쓰기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 (3)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글을 편집하고 수정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ChatGPT의 활용에 대한 논의는 학습자들이 오류를 최소화하고 완성도 높은 글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ChatGPT의 피드백 정확도는 입력된 질문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확한 질문 제시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글쓰기에 대한 ChatGPT를 통한 오류 분석 결과에 한정되므로 일반화할 수 없다.

Author

1. 발표자: 김지희 단독
2. 소속: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3. 직위: 초빙교수
4. 강의과목: 영어교육론, 영어교육논술, 영어교수방법론, 영어듣기읽기지도법, 영작문, 언어습득, 영어학특수과제, 영어사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직접 및 간접 등급 함축 인식 비교 분석

최정인

(부산대학교)

등급 함축(scalar implicature)이란 화자가 등급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언어적 표현으로 ‘some, .. most, .. all’과 같은 수량, ‘never, .. sometimes, .. always’와 같은 빈도 등의 일정한 가치 등급에서 하나의 가치를 표현하는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그 의미가 전달된다. 다음 예문(1)을 보자.

(1) Some of the students came to the party.

(Cremers and Chemla 2014: 202)

화자가 청자에게 예문(1)과 같이 ‘some’이라는 등급 표현을 사용하여 발화한다면 청자는 예문(1)의 발화를 듣고 다음의 예문(2a) 또는 (2b)로 이해할 것이다.

(2) a. Some or all of the students came.

b. Some, but not all, of the students came.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all’은 ‘some’을 함의하고 있어($all \subseteq some$), ‘some’은 어떤 것의 일부를 의미하기도 하고 어쩌면 모든 것(some and possibly all)을 의미할 수도 있기에 (Slabakova 2010: 2444-2445; Snape and Hosoi 2018: 164), 예문(1)은 예문(2a)와 같이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화자가 “All of the students came to the party.”라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였다면 화자는 예문(1)과 같이 발화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2b)의 해석인 “학생들 전부가 온 것은 아니다.”라는 추론은 예문(1)의 등급 함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b)에서 “학생들 전부가 온 것은 아니다.”라는 등급 함축은 다음의 예문(3)과 같이 명시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가 아닌 선택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3) Some of the students came to the party. In fact they all came.

우리는 화자와 청자가 효율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서로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Grice(1975: 45-46)의 협력 원칙(cooperative principle)과 대화 참여자가 대화에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면서, 거짓되지 않고 진실 되게, 전후 관계에 맞도록 간단명료하게 말해야 한다는 대화 격률(maxims of conversation)을 통해 화자의 예문(1) 발화는 (2a)가 아닌 (2b)를 의미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추론은 ‘some’과 ‘all’ 뿐만 아니라 ‘sometimes’와 ‘always’, ‘or’와 ‘and’, ‘might’와 ‘must’ 등 다양한 등급 표현에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어를 사용한 역방향 등급 함축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음 예문(4)와 (5)를 보자.

- (4) a. Bob sometimes went to school(직접 등급 함축: DSI)
b. Bob went to school at least once and possibly all the time(always).
c. ~ Bob didn't always go to school.

Author

안녕하세요. 팬코리아영어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게 된 **최정인**입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응용언어학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부산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영어 등급 함축 문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의 주제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직접 및 간접 등급 함축 인식 비교 분석입니다.

learningpeople@pusan.ac.kr

AI 이미지 생성기를 활용한 영어 교육 방안 연구

황요한

(전주대학교)

본 연구는 생성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문해력의 일환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롬프트 리터러시"의 개념을 조명한다. 이는 AI 시스템에 정확한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제공하고, 출력물을 해석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프롬프트를 반복적으로 세밀하게 다듬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를 기반으로 이 연구는 다양한 이미지 생성 도구들을 활용하여 영어 어휘력, 문법, 창의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접근법을 탐색한다. 또한, AI 기술이 어떻게 언어 학습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와 함께 효과적인 교육 전략을 제안한다. 이러한 접근은 학습자들이 보다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영어를 학습하게 함으로써, 전통적인 학습 방법에 비해 더 높은 동기부여와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프롬프트 리터러시가 어떻게 실제 교육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며, 미래 지향적인 영어교육 연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교육자와 학습자 모두가 AI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uthor

Yohan Hwang is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t Jeonju University in South Korea. He holds a Ph.D. in Language and Literacy Education with a specialization in TESOL and World Language Education from the University of Georgia. As a researcher seeking resources to make the next technological leap, he is currently interested in exploring the roles of AI technology and the metaverse in English education. His articles have been published in *Computers & Education*,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Language and Education*, and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among others.

baseble@naver.com

A Study on the Foreign Accents of Chinese English Learners

Yuying Kang
(Datong University)

Foreign accents of Chinese English learners (CELs) are one of the challenges for them in English learning.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foreign accents of CELs and their pronunciation learning.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What pronunciation errors can be marked as foreign accents of CELs? 2. Which pronunciation errors: suprasegmental or segmental errors, are much more salient as an indicator of foreign accents of CELs? 3. Is it a unique Chinese accent or a combination of different foreign accents for CELs? 4. Is there any discrimination against the foreign accent of CELs? 5. Is it necessary to reduce a foreign accent in a globalization context? The attitudes toward CPH, the language environment, and the feasibility of the learning goal of a natural-like accent will also be explored. This research is qualitative research, based on the interviews of 9 native English teachers and 20 Chinese English teachers. Nvivo12 and ChatGPT are used to make codes based on themes and analyze the data. Results are as follows: CELs have challenges from both segmental features and suprasegmental ones: vowels and consonants, pauses, rhythm, speech rate, tone, and intonation. Most interviewers agree that there is a unique Chinese accented English, and a few of them believe that different regions in China will show different features of their accents of English. Some of the errors are regional errors due to the dialects, not national errors due to the Mandarin for CELs. When rating foreign accents, the global accent is more salient than the regional accent. Most of them disagree that there is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accents. English as a Lingua Franca is more tolerant of varieties from different countries under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Foreign accents are no longer something embarrassing but more a representation of one's cultural identity and social belonging. Some teaching method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pronunciation learning and teaching are also provided in this research.

Author

Yuying Kang is a lecturer of the Business English department at Datong University in China. Her research area is on phonetics, phonology, and English teaching and learning. She has published one paper in the KCI journal on listening anxiety with her supervisor and another paper on listening strategies in an international journal.

yuyingkang67@gmail.com

Patterns of Voice: A Model-Driven Analysis of Opinion-Based Argumentative Texts from Korean University Students

이영화
(선문대학교)

This study aims to analyze structures of argumentative texts written by Korean university students using a systematic framework for meaning-making. It also seek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successful and unsuccessful pieces of work. The participants were thirty-five students in the English department, and 80% of them were sophomores. The data comprised the students' argumentative writing about social issues. The analysis of the written texts was based on Toulmin (2003) model, which includes six elements of argumentation: claim, data, warrant, backing, qualifier, and rebuttal. The findings revealed that most students used the three basic elements, claim, data, and warrant, reaching to 78.9%. However, the second elements, backing, qualifier, and rebuttal, appeared in a small proportion. These findings reflect that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grasped the basic elements of argumentative writing. This study concludes that Toulmin elements provided insufficient evidence to differentiate the overall quality of writing. Instead, it appears that the scores of writing derive from the meaning-making in the texts. It is the responsibility of writing teachers to provide students with a content- and language-integrated instructional approach for meaning-making in a given context.

Author

Dr. **Younghwa Lee**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at Sun Moon University. She obtained her Ph.D. from Lancaster University, UK. Her research interests lie in the EFL writing, which focuses on the practices from socio-cultural perspectives, writer identity, and macrofunctions of language.

yhlee831@sunmoon.ac.kr

IB PYP 프레임워크 기반 영어 수업이 초등학생의 영어 읽기 능력과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문혜정

(봉학초등학교)

백주현

(부산교육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IB PYP 프레임워크 기반 읽기 지도 방안을 초등 영어 수업에 적용하여 학습자의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적인 학습 활용 방안, 인식 및 태도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B 광역시에 소재한 B 초등학교 4, 5, 6학년 자율 동아리 학생 16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8주간 격주로 8차시 연구 수업을 진행하였다.

실험 전후 연구 대상자들의 읽기 능력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읽기 능력 검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연구 수업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1차시 및 8차시 수업 이후 총 2회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여 IB PYP 프레임워크 기반 영어 읽기 활동의 실시 전후 학습 결과를 비교하였다. 위와 같이 수행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수준별로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 학습자들의 읽기 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들 역시 서면 인터뷰 응답에서 읽기 유창성 및 정확성, 탐구력 증진 등의 측면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둘째, ‘문화’라는 실제적인 맥락 및 타 교과와 연계한 깊이 있는 읽기 수업으로 실생활로의 배움의 전이를 이끌어 학습 내용과 삶을 연결하였다. 셋째, 학습자들의 탐구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사 및 토의 형태의 학습자 주도형 활동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고, 정리하며 깊이 있게 연구하는 힘을 길렀고, 수준별 심화 과제를 수행하며 고차원적 사고력을 강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학습자의 문화적 역량을 함양하였다. 문화 연계 영어 학습을 하며 언어 및 문화적 역량을 통합적으로 신장하였다. 이는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이 확장되며 ‘언어’에 대한 호기심이 함께 고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섯째, 학습자의 협동심과 주도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모둠 활동, 협동과제를 통해 상호 간 활발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협동 능력을 강화하였고,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자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이끌어냈다.

본 연구는 주로 이론적 설계에만 그쳤던 IB PYP 프레임워크 기반 초등영어 읽기 지도 방안을 구안하고, 실제로 적용하여 그 효과를 교육 현장에서 검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 수업에 적용했던 학습 활용 방안이 영어 읽기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탐구력, 협동심 및 주도성, 문화적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IB PYP 프레임워크 기반 영어 수업이 공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별 학교 차원의 학년 군별 IB 프로그램 활용 수업 및 평가자료 개발, 수업 환경 구성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의 표준화된 교육과정 재구성 예시 자료 보급,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꾸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Authors

문혜정: 부산 봉학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며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에서 초등 영어 교육에 관해 배우고 연구하고 있다. 특히, IB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공교육에 접목할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본 연구가 시작되었고, 해당 분야에 대해 앞으로도 추가적인 공부를 하고자 한다. qwerty2861@naver.com

백주현

- University of York(UK) 응용언어학 박사
- 현) 부산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 현) 언어과학회 회장
- 현) 초등영어교육학회 학술이사
- 현) 한국언어과학회 편집위원
- 현) 한국영어학회 홍보이사

The Impact of Guilt and Shame on EFL Learners' Self-Assessment of English Proficiency: A Comparison between College and High School Students

Jeonga K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different negative emotions experienced in English learning affect EFL learners' self-perception of English competency. It also aims to identify differences in these experiences between high school and college EFL learners. Four negative emotions in Korean EFL learners were explored: guilt for incomplete or unsuccessful tasks, shame for English incompetency, detachment (avoidance) of tasks, and externalization (blaming others and bad luck). High school EFL learners (n=140) and college EFL learners (n=104) responded to survey questionnaires on their English competency and negative emotions. The reliability of the variables was assessed to rule out inappropriate items. Correlations among the four emotions and between self-perception and the emotions were then identified using jamovi 2.3.21, an R-based statistical program. The findings reveal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at exist between high school and college EFL learners. The analysis of correlations among the four emotions revealed interesting patterns. In both groups, higher shame was associated with decreased detachment and increased externalization. Conversely, higher guilt was linked to decreased externalization. Differences emerged in how guilt relates to shame: higher guilt in high school learners coincided with higher shame, while no such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se emotions in college learners. Additionally, in high school learners, increased detachment led to increased externalization. Interestingly, no correlation between these two variables was observed in college learners. A distinct pattern emerged when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perception of English competency and the four negative emotions. Both groups exhibited a similar pattern: learners with higher self-perception of English competency reported a greater likelihood of experiencing guilt and externalization, but a lower likelihood of experiencing shame and detachment. Intriguingly, detachment is even not statistically correlated with self-perception in college learners.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lies in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guilt is the most powerful variable for high school EFL learners, while externalization has the strongest effect for college EFL learner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negative emotions, particularly guilt and externalization, can play a

positive role in English learning by motivating learners and facilitating high self-esteem.

Author

Dr. **Jeonga Kim** is a Lecturer at Language Education Center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he specializes in teaching English grammar, and academic and scientific writing. Her research interests encompass discourse analysis, language and literacy development in children with learning challenges, the motivational factors and self-perceptions of EFL learners (L2 selves), and writing strategies using AI tools. Dr. Kim holds a Ph.D. in English Linguistics and Communicative Disorders. She employ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ologies to explore the complexities in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jxk7993@gmail.com

EFL 영어발음 교육에 있어 초음파를 활용한 시각적피드백과 형태초점교수법의 영향

이윤경

(경북대학교)

윤관희

(대구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영어 모음: /i/-/ɪ/, /u/-/ʊ/, /ɛ/-/ə/의 발음학습에 있어 초음파(ultrasound)를 이용한 시각적 피드백(visual feedback)과 형태 초점 교수법(Focus on form)의 결합의 영향을 조사한 실험연구이다. 본 연구는 양적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인 영어 학습자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3주 동안 각기 다른 교육 방법을 적용한 후 사전·사후 실험을 통해 그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실험 데이터는 수업 자료와 시험 자료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수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1) 실험 그룹 1은 초음파를 이용한 시각적 피드백과 함께 형태 초점 교수법을 받았다. 학습자들은 영어 모음을 연습할 때 초음파 기계를 사용하여 혀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사는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발견하면 학습자의 혀 이미지를 확인하고 영어 원어민의 발음과 비교하여 교정할 기회를 가졌다. 2) 실험 그룹 2는 형태 초점 교수법만을 제공받았으며 시각적 초음파 피드백은 제공되지 않았다. 여기서 교정적 피드백은 반복, 언어적 메타인지적 피드백, 확인 요청, 명료화 요청 등이 사용되었다. 3) 통제 그룹은 형태 중심 교수법(Focus on forms: 예:문법-번역식 혹은 청화식 교수법 등)으로 수업을 받았다. 본 연구의 시험 자료는 무작위로 섞인 단어 (12개의 target words 및 6개의 filler words)를 사용하여 사전·사후 테스트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음파 피드백과 형태 초점 교수법을 결합한 실험 그룹 1은 사후 테스트에서 대상 모음의 발음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특히 이 그룹은 사전 테스트에서 13%에서 사후 테스트에서 67%로 발음 향상을 보여주었다. 둘째, 시각적 초음파 피드백 없이 형태 초점 교수법만을 받은 실험 그룹 2에서는 발음 향상이 8%에서 25%로 나타났으며, 셋째, 전통적인 형태 중심 교수법을 받은 통제 그룹에서는 16%에서 17%의 결과를 보였다. 특이한 점은 모든 그룹의 학습자가 사후 테스트에서 /i/와 /ɪ/를 성공적으로 구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u/-/ʊ/ (40%)와 /ɛ/-/ə/ (20%) 모음 쌍을 구별하는 능력을 보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초음파를 활용한 시각적 피드백이 형태 초점 교수법과 결합하여 한국인 영어 학습자에게 어려운 영어 모음 발음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Authors

윤관희: 대구대학교 영어교육학과 교수: 1저자

ghyun@daegu.ac.kr

주요 연구 분야: L2 영어 학습자의 mental lexicon, L2 영어 학습자의 음운 습득, 생산, 지각 및 어휘 처리

이윤경: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사: 교신저자

yklee0805@knu.ac.kr

주요 연구 분야: L2 영어 학습자의 음운 습득, 전산 언어학 및 영어 교육 방법론

Concurrent Session 4 (좌장: 박시형, 부경대학교) 405호

Time	Session 4	Moderator /Discussant
10:00-11:00	Effects of TTS and ASR App-based Corrective Feedback Activities on College Students' English Pronunciation Intelligibility (박나연, 부산대학교)	사회자: (박시형, 부경대학교) 토론자: (정우현, 영남대학교)
	영어 예비교사의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경험, 인식 및 태도 간의 관계 탐색 (최재호, 상명대학교)	
	관광 영어 수업에서 발표 활동이 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미치는 영향 (이가영, 부산외국어대학교)	
11:10-12:10	Keynote Speech	
12:10-1:10	Lunch Break (217호)	
1:10-2:00	Plenary Sessions	
2:10-3:10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한 수업이 고등학교 학습자의 문항 유형별 독해 능력과 정의적 태도 및 독해 전략 활용에 미치는 영향 (오수진, 계룡용남고등학교)	사회자: (오미숙: 국립안동대학교) 토론자: (양재석, 대구교육대학교)
	AI를 활용한 영어 그림책 제작 수업이 학생들의 읽기 및 쓰기 능력과 자기효능감, 디지털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황보은, 논산여자고등학교)	
	A Bibliometric Analysi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eachers Research (김동현, 이길영, 한국외국어대학교)	
3:20-4:20	Experiencing Real-World Learning through PBL in EFL College Reading Classes Based on Learner Perceptions (오미숙, 이유화, 국립안동대학교)	사회자: (장소영, 군산대학교) 토론자: (황요한, 전주대학교)
	The Effect of e-book Reading Activities on Basic English Literacy and the Learning Attitudes of Middle School English Underachievers (류신아, 논산여자고등학교) (배지영, 공주대학교)	
	Using TalkPal AI as a Motivational Tool (Melanie Piacente, Hoekyeung Kim, SUNY Binghamton)	
4:30-5:30	Special Session	
5:30-6:00	Closing Ceremony/ Research Ethics Workshop	

Effects of TTS and ASR App-based Corrective Feedback Activities on College Students' English Pronunciation Intelligibility

박나연

(부산대학교)

Recent L2 pronunciation studies have shifted focus to prioritize intelligible pronunciation in English education rather than perfect pronunciation (Derwing & Munro, 2015, 2022), emphasizing a “realistic” approach (Levis, 2020, p. 20). However, as several challenges remain in EFL classrooms such as large class sizes and limited English exposure (Thomson, 2013), integration of Text-to-Speech (TTS) and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ASR) apps has been recommended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iding self-directed learning (Van Lieshout & Cardoso, 2022). However, the technological limitations of each app prompt further pedagogical investigations into enhancing their efficacy with human corrective feedback (Evers & Chen, 202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TS and ASR app-based human corrective feedback on college students' English pronunciation intelligibility. A total of 22 Korean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over 12 weeks, using the TTS app Naver Papago and the ASR app Google Meet.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How do TTS and ASR app-based human pronunciation corrective feedback affect college students' pronunciation abilities?, and (2) What is the impact of TTS and ASR app-based human pronunciation corrective feedback on the affective states of college students?

To address these questions, experimental group 1 (peer corrective feedback) and experimental group 2 (combined peer and teacher corrective feedback) participated in pre- and post-pronunciation assessments. Expert raters evaluated the participants' pronunciation intelligibility based on a 7-point Likert scale rubric, and an ASR app called Google Translate was employed as a partial assessment aid to collect word recognition rates. Additionally, student surveys were collected to examine attitudes towards English pronunciation education and TTS and ASR app-based corrective feedback learning sessions.

The results revealed that integrating combined peer and teacher corrective feedback with TTS and ASR app learning facilitated pronunciation performance, resulting in more intelligible pronunciation and positive attitudes. This suggests that EFL students can benefit from human corrective feedback when practicing pronunciation with guidance from teachers in TTS and ASR app-based learning activities.

[References]

Derwing, & Munro. (2015). Pronunciation Fundamentals: Evidence-Based Perspectives for L2 Teaching and Research. Amsterdam, The Netherlands: John Benjamins.

Derwing, & Munro. (2022). Pronunciation Learning and Teaching. In The Routledge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Speaking (pp. 147-159). Routledge.

Evers, & Chen. (2022). Effects of an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System with Peer Feedback on Pronunciation Instruction for Adults.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35(8), 1869-1889.

Levis. (2020). Revisiting the Intelligibility and Nativeness Principles. Journal of Second Language Pronunciation, 6(3), 310-328.

Van Lieshout, & Cardoso. (2022). Google Translate as a Tool for Self-Directe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26(1), 1-19.

Author

발표자 **박나연**은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교육학 석사 졸업 후 현재 동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관심 분야는 영어발음교육, 에듀테크, 음성학입니다.

skdus18@hotmail.com

영어 예비교사의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경험, 인식 및 태도 간의 관계 탐색

최재호
(상명대학교)

디지털기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청이 커짐에 따라, 학교 교실에서 디지털기반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나, 교사의 인식, 태도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교실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교수법의 수용하는 것에 있어 교사의 인식이나 태도가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연구되었다. 최근 교육부에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명제하에 교육에서의 디지털기반 교육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교사의 디지털기반 교육의 수용이나 활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영어과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기반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사범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학중인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예비교사들의 디지털 관련 경험, 디지털리터러시 수준, 디지털기반 수업의 다양한 형태별 인식, 효능감, 활용의지, 학습의지를 탐색하였다. 연구를 위해 관련 요인의 평가 도구를 포함한 설문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각 요인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예비교사의 활용 및 학습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을 위해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예비교사들의 디지털 관련 생활 및 학습 현황은 디지털네이티브의 성향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예비교사의 디지털기반 교육에 대한 인식은 동영상, 실시간 온라인, AI활용, 메타버스 활용의 세부 구분에서 차이를 보였다. 인식은 중요도 인식과 효능감으로 구분하였고, 효능감이 중요도 인식과는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활용의도나 학습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중요도가 주요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요인 간의 의미있는 관계가 확인이 되었다. 다만, 디지털리터러시의 영향이 연구 초기 예측과는 달리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제언점을 제시하였다.

Author

최재호: 상명대 영어교육과

상명대 영어교육과에서 예비영어교사 교육을 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주제는 디지털기반 영어교육, 영어의사소통의지, 디지털교과서 등이다. 최근에는 디지털기반 교육 실천을 위한 교사의 역량이나 인식, 태도 탐구 및 교사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1clearn@smu.ac.kr

관광 영어 수업에서 발표 활동이 대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미치는 영향

이가영

(부산외국어대학교)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의 융합은 디지털 전환의 급진적 물결을 촉발하였다.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가속화되면서, 산업계는 물론 고등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끌며 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의 지형 또한 함께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본 연구는 관광영어 수업에 연계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관광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이 관광명소 소개 발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관광 콘텐츠를 탐색, 수집, 분석, 평가하는 과정은 더 이상 전통적인 리터러시 개념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며, 나아가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소통하는 능력이야말로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관광영어 교과 과제 수행을 하며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인식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혼합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변화 양상과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Author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강의초빙교수로 재직중이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효과적인 언어 습득에 관심이 있으며, 이에 대한 양적, 질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lifelikegreenery@hotmail.com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한 수업이 고등학교 학습자의 문항 유형별 독해 능력과 정의적 태도 및 독해 전략 활용에 미치는 영향

오 수 진

(계룡용남고등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한 읽기 후 활동이 고등학생의 문항 유형별 독해 능력과 정의적 태도 및 독해 전략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것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에 계룡시 소재 고등학교 3학년 82명을 선정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5주 동안 총 8차시 수업을 실시하였다. 교재는 EBS 수능특강 영어영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실험집단의 경우 지문을 읽은 후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하여 글의 구조를 확인하고 내용을 정리한 반면 통제집단은 구문 분석 위주의 강의식 수업으로만 진행하였다. 사후 독해 능력 평가 결과 비교를 통해 그래픽 조직자 활동이 문항 유형별로 학생의 독해 능력 신장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래픽 조직자가 정의적 태도와 독해 전략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래픽 조직자 활동은 학습자의 중심 내용 파악 문형과 관련된 읽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사후 독해 능력 평가를 통해 실험집단의 총점과 통제집단의 총점 간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그래픽 조직자 활동이 전반적인 독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문항 유형별로는 주장 파악하기, 주제 파악하기, 어휘의 적절성 파악하기, 빈칸 추론 문형에서 두 집단 간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그래픽 조직자를 통해 글을 시각화하는 과정이 학습자의 요지 파악 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둘째, 그래픽 조직자 활동이 학생들의 일부 정의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자신감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보였으며 흥미를 제외하고 학습 동기, 필요성 측면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그래픽 조직자가 학습자의 긍정적인 정의적 태도를 촉진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셋째, 그래픽 조직자 활동이 학습자의 독해 전략 중 총체적 독해 전략 활용을 촉진시켰다. 실험 수업 후 상위인지전략과 인지전략 중 문제해결 전략과 지원적 전략 활용에 있어서는 두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총체적 전략 활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그래픽 조직자 활동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파악하는데 집중된 만큼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파악하는 총체적 전략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픽 조직자 활동은 학습자가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총체적 독해 전략과 긍정적인 정의적 태도를 촉진하는 실질적인 교육 지도 방안이 될 수 있겠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지문의 난이도가 높고 다소 생소한 내용을 다루는 상황에서 그래픽 조직자를 통해 내용을 시각화하는 것이 어려운 지문의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심 내용 파악을 넘어 분석, 추론 등의 고등 정신 능력을 요구하는 독해 능력과 상위인지전략을 포함한 폭넓은 전략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래픽 조직자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래픽 조직자가 학습자의 독해 능력 향상과 정의적 태도 및 독해 전략 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향후 연구에서 실험 기간을 늘리고 학습자의 고차적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심화된 그래픽 조직자 활동을 장기간 실시한다면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영어 교육의 최종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uthor

발표자 이름 : 오수진

소속: 용남고등학교

이메일 tnwls10045@naver.com

공주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였다. 현재 충청남도 소재 계룡용남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을 가르치고 있으며,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교육학과 4학기 재학 중이다.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의 영어 독해 실력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방법을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영어 그림책 제작 수업이 학생들의 읽기 및 쓰기 능력과 자기효능감, 디지털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황보은

(논산여자고등학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의 디지털 기초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어 그림책 제작 수업이 고등학교의 영어학습자들의 영어 읽기와 쓰기 역량, 인공지능 리터러시,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충청남도 소재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영어권 문화 과목을 선택한 학생 총 55명이다. 연구대상 학생은 영어 교과를 진로선택과목으로 선택하는 등 영어과목에 대한 흥미가 높으며,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영역의 결과로 미루어 판단하였을 때 영어교과 성취도는 중상이다. 55명의 학생을 소속된 학급에 따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었다.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 200자 내외의 영문을 읽고, 글의 제목 짓기, 세부정보 파악, 요약하기 등을 수행하는 영어 읽기와 쓰기 사전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동질집단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리터러시와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자기응답식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두 집단이 또한 동질집단임을 확인하였다. 3월 2째주부터 4월 1째주까지 5주간 총 15차시에 걸쳐 실험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공통된 과업은 본인이 선정한 영어권 문화의 주요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 영어그림책을 이미지 생성 AI를 통해 창작한 그림을 활용하여 Google Presentation에 제작하고, 더 나아가 본인이 직접 녹음한 음성을 웹 페이지에 삽입하여 웹 오디오 영어 그림책을 제작하는 것이다. 실험집단은 영어그림책에 들어갈 글에 대한 피드백을 생성형 AI인 chat GPT에게 받아 수차례 수정하였으며, 반면에 비교집단은 교사로부터 대면 및 지면 피드백을 받았다. 연구의 결과 실험집단 학생들의 영어 쓰기 역량과 AI리터러시 역량에는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으나, 학생들의 영어 읽기 역량과 자기효능감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면서 과업을 해결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학생들의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Chat GPT와의 빈번하고 지속적인 소통에 의한 피드백이 학생들의 영어 쓰기 역량에 유의미한 향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의 영어 읽기 역량과 자기효능감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기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읽기 역량과 자기효능감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융합 영어수업 방법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Author

공주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였다. 현재, 충청남도 소재 논산여자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및 영어교과교사로 근무 중이며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교육학과 4학기 재학 중이다.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립 중등교사이며, 충남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을 5년 동안 지도하였다.

A Bibliometric Analysi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eachers Research

김동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이길영

(한국외국어대학교)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become increasingly ubiquitou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Therefor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existing research landscape regarding AI usage and language learning teaching is essential for informed decision-making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extensive arguments about adapting and utilizing AI technology in education, systematically analyzing and examining research articles dealing with AI and language teachers simultaneously. The study specifically considers articles published globally from 2020 to 2024. The researcher screened the 4,382 articles collected from Web of Science, Science Direct, IEEE, and EBSCOhost using the PRISMA 2020 framework. After a manual screening process, 41 papers were chosen. Nevertheless, the number of articles gathered using the framework needed to be increased for a comprehensive analysis. Hence, the researcher gathered 589 publications from the Web of Science that specifically address the overarching subject of "AI and teachers" and the specific focus of "AI and language teachers." The researcher conducted a visual analysis of literature articles using Cite Space and VOSviewer. Subsequently, the researcher identified extremely productive journals, papers with high output, collaboration patterns, places with significant article activity, and prevailing subjects in this field. This research will promote the in-depth exploration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AI in language teaching, providing valuable insights for educators, policymakers, and practitioners. By understanding the dynamics of AI and language teachers, stakeholders can make informed decisions regarding curriculum design, teacher training, and technology integration.

Authors

Donghyun Kim

Donghyun Kim is pursuing his Ph.D. in TESOL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at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Seoul,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teacher education and technology use in EFL classrooms. dh3009@hufs.ac.kr

Kilryoung Lee

Kilryoung Lee i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South Korea. He is a former President of the Applied Linguistics Association of Korea and Asia TEFL. He is currently an Advisory Board Member of Asia TEFL.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teacher education, listening, speaking, and classroom interaction. klee@hufs.ac.kr

Experiencing Real-World Learning through PBL in EFL College Reading Classes Based on Learner Perceptions

오미숙

(국립안동대학교)

이유화

(국립안동대학교)

This study aimed to explore EFL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Problem-Based Learning (PBL)-based collaborative writing activities in their general English courses and assess the extent to which these activities enhance their writing skills. A total of 93 students from three classes, called College English, participated in the study. Data collection involved a main survey and students' reflective journals, enabl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Findings indicated that the six PBL-based collaborative activities increased interest and satisfaction levels in the class, with a majority of students reporting that improvements in their English writing skills were facilitated through these activities. Responses from open-ended survey questions and reflective journals highlighted the benefits of PBL-based collaborative activities. Benefits included authentic English vocabulary acquisition, enjoyment derived from collaboratively solving new authentic problems, a sense of achievement from presenting collaborative writing outcomes, and building new friendships through interactions while experiencing the real world in an English-friendly environment.

Authors

Misuk Oh is a lecturer at Andong National University,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diverse pedagogical teaching methods such as Problem-Based Learning (PBL), Task-Based Language Teaching (TBLT), flipped learning, and technology-enhance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LA).

mi_suk_oh@daum.net

Yuhwa Lee is a Lecturer at Andong National University,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various teaching methods: PBL, TBLT, flipped learning, and technology-based SLA.

icindy72@naver.com

The Effect of e-book Reading Activities on Basic English Literacy and the Learning Attitudes of Middle School English Underachievers

Ryu, Shinah

(Kongju National University)

Bae, Jiyou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was a change in the underachievement patterns of 4 middle school students after experiencing e-book reading classes. These students lacked basic English literacy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home environment, lack of systematic English learning experience, and lack of confidence. Research classes were conducted for a total of 24 sessions, averaging 3 times a week with 30 minutes per session. The classes took place over a period of approximately 3 months, from November 2022 to January 2023. Eight e-books were used from the Little Birdie Books series on the EBS English website. During the study, the focus was on how e-book reading activities affect phonics, reading fluency, vocabulary, reading comprehension ability, and learning attitudes of middle school English underachievers. Word tests, basic literacy pre/post tests, affective domain checklists, and teacher observation evaluation papers were used as evaluation tools. As a result of conducting research classes, it was found that reading activities using e-book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honics and reading fluency of students with low English ability. Furthermore, improved phonics knowledge and reading fluency led to positive changes in their vocabulary as well. Also, the activity of interpreting sentences while reading e-books helped students improve their reading comprehension ability. All of these developments helped to increase the self-directedness, interest/motivation, and confidence of the students with underachievement.

Authors

Shinah Ryu(류신아) is an English teacher at Nonsan Girls High School in Korea. She finished her master's course in English Education at Kongju National University. Her main research interests include L2 teaching and learning skills and strategies, second/foreign language acquisition, and technology-assisted language learning.

saryu814@gmail.com

배지영: 공주대학교 영어교육학과에 교수로 재직중이며, 주요 연구 관심사는 제2언어 문해 교육, 문학 기반 영어 교수법, 디지털 문해력이다.

jybae423@kongju.ac.kr

Using TalkPal AI as a Motivational Tool

Melanie Piacente

(SUNY Binghamton)

Hoekyeung Kim

(SUNY Binghamton)

This presentation will demonstrate how to utilize Talkpal AI as a motivational tool across three different EFL groups: adult learners, middle school students with lower proficiency , and middle school students with intermediate levels. Each group has unique characteristics and interests, necessitating tailored teaching modifications to maximize engagement and efficacy.

Talkpal AI provides immediate feedback and is easily accessible especially for those without access to an English speaker. The purpose of using Talkpal AI is to offer more authentic opportunities for English learners to practice their speaking skills. The presenters will share teaching lessons and teaching activities with Talkpal AI used for the three different groups. Additionally, the responses from students and teachers through critical reflection after using talkpal AI will be presented with pedagogical recommendation. The presentation will highlight this by tailoring the content and delivery to resonate with specific interests and demographics, educators and classroom teachers can reach the full potential of Talkpal AI to inspire and empower learners across different age groups and backgrounds.

Authors

Melanie Piacente is a current Master's (MA TESOL) student at Binghamt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with an imminent graduation date of August 2024. She is also currently a native-English teacher at an all boys' public middle school in 여수 and has been since August 2023. She also has previous teaching experience in New York through a public school district utilizing content-based instruction by teaching English, math, social studies and science to adult English Language Learners. mskapin1@binghamton.edu

Dr. **Hoekyeung Kim** is an Associate Professor and TESOL program founder at

Binghamt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he received her undergraduate degree from Ewha Woman's University in Korea and her doctoral degree from Buffal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Her PhD is in advanced educational technology and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eacher education and assessment, L2 writing, bilingual and multilingualism, Korean L2 learning and educational technology.
hoekim@binghamton.edu

Concurrent Session 5 (좌장: 김규미, 국립안동대학교) 404호

Time	Session 5	Moderator /Discussant
10:00-11:00	영어 수업에 대한 중학생들의 학습 정서 이해: 척도 타당화 연구 (장소영, 군산대학교) (최선희, 전주대학교)	사회자: 김은정(영남대학교) 토론자: (임재현, 대구교육대학교)
	L2 언어 인지 발화 과정에서의 말하기 조정에 대한 성별의 영향 (서미교, 부산대학교)	
	Motivation to Learn English among Today's Adult Korean Learners of English: From Motivational Dichotomies to a Continuum Perspective (박지연, 박윤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1:10-12:10	Keynote Speech	
12:10-1:10	Lunch Break (217호)	
1:10-2:00	Plenary Sessions	
2:10-3:10	영어 교육을 위한 ChatGPT의 잠재적 평가: 교육적 맥락에서의 언어적 특성 분석 (강준수, 중앙대학교) (박신향, 대구한의대학교)	사회자: (김남희, 조선대학교) 토론자: (김선영, 목포대학교)
	Whose the killer?: Korean College Students' Discursive Constructions of "Killer Questions" in Korean College Entrance Exams through a Discursive Psychology Approach (임재현, 대구교육대학교)	
	중학교 영어듣기능력평가의 의사소통기능 활용 분석 (최선희, 전주대학교) (배지영, 공주대학교) (박상복,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20-4:20		
4:30-5:30	Special Session	
5:30-6:00	Closing Ceremony/ Research Ethics Workshop	

영어 수업에 대한 중학생들의 학습 정서 이해: 척도 타당화 연구

장소영

(군산대학교)

최선희

(전주대학교)

1. 들어가며

외국어 학습자들은 교실에서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통하여 외국어를 학습해 간다. 따라서 기존의 인지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던 연구 방향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의 정서를 다루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학습자의 정서를 고려한 주된 연구가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춘 반면, 최근에는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영어 교실에서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외국어 학습의 즐거움(Foreign Language Enjoyment, FLE)’이라는 정서의 차원성(구인)을 밝히고, 우리나라 영어 학습 상황에 맞는 타당한 척도 개발을 하는 것이다.

2. 연구 도구, 참여자, 분석 방법

Dewaele와 MacIntyre(2014, 2016)은 ‘외국어 학습 즐거움’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도구(Foreign Language Enjoyment Scale, FLES)를 개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화를 시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1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두개의 요인(학습자 개인 특성과 학습 환경-교사, 동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타당화 작업을 마친 Dewaele와 MacIntyre에 의해 개발된 21개 문항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사용하였고, 원본에서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설문 도구를 디자인하였다. 전북지역에 위치한 6개 중학교에서 총 647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Rasch 분석 모델(WINSTEP 프로그램)과 요인분석(탐색적요인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하여 설문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문항 신뢰도 지수는 .931(Cronbach 알파값)로 응답자들의 신뢰도는 높았고, Rasch 분석과 요인 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였다. 2) Rasch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든 문항이 하나의 단일 차원성(외국어 학습 즐거움)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Rasch 분석 결과에 의하면, 21개 문항 중 1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20개의 문항은 내용 타당도가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4)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3개의 요인(학습자 특성, 교사, 동료)이 추출되었고,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도 3요인 모델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합한 모델임을 입증해 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습자들의 상황을 고려한 더 타당한 설문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몇가지 논의점도 있다. 첫째, 21개 중 8개 문항의 구인이 여전히 불분명하여 문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또는 다른 차원성의 존재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남녀 성별에 따른 문항 반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다고 판명 되었으므로, 문항 내용 검토 및 결과 해석에 주의 해야 할 것이다.

Authors

장소영(군산대학교): 주요 연구 관심사는 Rasch 모델을 기반으로 한 채점자 신뢰도 및 채점 타당화, 설문 도구 타당화이며, 최근에는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감정(외국어 학습 즐거움, 외국어 학습 지루함)과 관련된 측정 도구 타당화 및 변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clarasoyoung@hanmail.net

최선희는 전주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직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제2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정서 요인, 측정 도구 개발, 교재 개발, 교사 교육이다.

sunheech@jj.ac.kr

L2 언어 인지 발화 과정에서의 말하기 조정에 대한 성별의 영향

서미교

(부산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성별이 영어 모음 인지와 발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성별이 말하기 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L2 언어 학습자들의 언어 습득과 발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실험 대상자로는 24명의 한국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을 선정하였으며, "AXB 테스트"를 통한 모음 인지 및 상대적 모음 특성 거리 측정을 통한 발화 실험을 진행하였다. 모음 인지 실험에서는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에 대한 인지 능력을 측정하였으며, 모방 발화 실험에서는 원어민 발음을 모방하도록 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음성 분석은 Praat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 처리와 분석은 엑셀 및 통계 프로그램(R, SPSS)을 사용하였다. 인지-발화의 실험 데이터는 빈도 및 t-검정 분석을 통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말하기 조정에 대한 성별 간 비교를 통해 성별이 L2 언어 인지와 발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인지 실험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인지 능력의 차이는 없었으나, 모방 발화 실험에서는 남성 실험 참여자들이 여성 실험 참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모음 특성에서 한국어-영어 사이의 언어적 거리 차이가 더 큰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이는 성별에 따른 모음 인지 능력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모방 발화 실험에서 남성 실험 참여자들이 더 강한 말하기 조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이 L2 언어 인지와 발화 과정에서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사회-문화적 규범과 인지적 제약이 성별 간 말하기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성별이 언어 인지와 발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탐구하였으며, 결과는 성별에 따른 말하기 조정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남성 실험 참여자들이 모방 발화에서 더 강한 조정을 보인 것은 성별이 말하기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 요인의 영향과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사회적 요인을 잘 활용하여 다른 성에 대해 인지하고 그것을 학습자와 학습 과정에 적절하게 적용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교육 방안 연구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uthor

저는 부산대학교에서 음성학을 전공하고, 사회언어학과 말하기 조정에 대한 연구 주제로 박사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현재는 부산대학교 인문학 연구소에서 포닥과정을 진행하며, 음성과 언어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selena.suh@gmail.com

Motivation to Learn English among today's Adult Korean Learners of English: from Motivational Dichotomies to a Continuum Perspective

G Yeon Park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Yunjoo Park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Motivation plays a crucial role in language learning, particularly for adult learners. This proposal aims to explore the nuanced landscape of motivation among adult Korean learners of English, moving beyond traditional dichotomies to embrace a continuum perspective. Drawing on theoretical frameworks such as Deci and Ryan's (1985, 2000, 2012, 2014) intrinsic-extrinsic motivation dichotomy and Gardner and Lambert's (1972) integrative-instrumental motivation framework, this study examines how motivation to learn English evolves and manifests among adult learners.

Method:

The study involved 336 undergraduate students and 25 graduate students from an English department at a National Open University in Korea. Undergraduate students were surveyed regarding their English learning motivation based on the traditional two-fold dichotomies, while graduate students provided qualitative insights into their lived experiences of learning and using English.

Results:

Findings from the undergraduate cohort revealed a predominant focus on instrumental motivations, such as obtaining a degree and pursuing careers in education or international settings. In contrast, graduate students showcased a more complex motivational landscape, with motivations spanning from personal fulfillment to professional advancement and societal contributions. Moreover, their narratives highlighted the coexistence and interplay of previously distinct motivations, suggesting a continuum perspective.

Implicat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mong adult Korean learners. By acknowledging the continuum perspective, educators and policymakers can design more nuanced and effective language learning programs that cater to the multifaceted motivations of adult learners. Additionally, this research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incorporating learners'

lived experiences into motivational frameworks, offering insights into the dynamic nature of motivation over time.

Keywords: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dult learners,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integrative motivation, instrumental motivation, continuum perspective, qualitative research.

Authors

1. G Yeon Park is a lecturer and researcher in universities in Korea. She is a graduate of the Department of Literacy, Culture, and Language Education at Indiana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are translingual practice among multilinguals, ESL/EFL academic writing, L2 writing in the digital age, and literacy education in Rwanda. gyeonpark@knou.ac.kr;

2. Yunjoo Park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t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She received her Ph.D. in Language Education from Indiana University. Her interests mainly include Blended learning, English Methodology, Material Development, and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yjpark@knou.ac.kr

영어 교육을 위한 ChatGPT의 잠재적 평가: 교육적 맥락에서의 언어적 특성 분석

강준수

(중앙대학교)

박신향

(대구한의대학교)

본 연구는 ChatGPT가 생성하는 언어적 특성을 분석하여 영어 학습 보조도구로서의 ChatGPT의 효용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영어교과서를 기반으로 ChatGPT가 생성하는 언어의 어휘적 구문적 특성을 코퍼스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ChatGPT 언어의 1) 어휘 수준, 2) 어휘다양성, 3) 평균 단어 길이, 4) 평균 문장 길이, 5) 이독지수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어휘적 특성 분석 결과, ChatGPT가 생성하는 언어의 어휘 수준은 한국 중학생의 영어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휘다양성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균 단어 길이의 경우, ChatGPT가 생성한 언어는 현재 중고등학생자가 사용하는 영어교과서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문적 특성 분석 결과, ChatGPT의 언어는 실제 중고등학생자가 사용하는 영어교과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독지수는 원어민 학습자 9학년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면, ChatGPT 언어의 어휘적 구문적 특성은 영어 학습자들에게 적절하면서도 다소 도전적인 수준에 해당하였으며, 이는 ChatGPT가 영어 학습 보조도구로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영어 학습 보조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교사나 학습자에게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영어 교육분야에서 대화형 인공지능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향후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Selected References

- Kang, J. S. (2023). Comparative analysis study of ChatGPT and Google Home as supplementary tools for secondary English language learning.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Kang, J. S & Park, S. H. (2024). Exploring ChatGPT as an English learning assisting tool: Focusing on lexical and syntactic corpus analysis. Journal of Language Sciences, 108(1), 49-66. <https://dx.doi.org/10.21296/jls.2024.03.108.49>

Authors

Junsoo Kang is a doctoral student at Chung-Ang University, majoring in Educational Technology withi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artificial intelligence in learning, corpus analysis, learning engagement, and

reading strategies.

[anf7788@naver.com]

Sinhyang Park serves as an associate professor in General Education College at Daegu Hanny University in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English grammar instruction, comparative textbook analysis and corpus-based research.

[arncott@hanmail.net]

Whose the Killer?: Korean College Students' Discursive Constructions of "Killer Questions" in Korean College Entrance Exams through a Discursive Psychology Approach

Jae-hyun Im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applies discursive psychology to examine how Korea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English education utilize various interpretative repertoires in discussing their perceptions of the "Killer Questions" in the English section of the Korean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The investigation focuses on their discursive constructions concerning the validity of claims that several questions are overly challenging for Korean high school students. Contrary to the widespread belief,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se students largely reject the notion that the questions are excessively difficult.

The analysis of spoken discourse data identifies three primary interpretative repertoires employed by the students. First, the Preparation and Capability repertoire is used to argue that with proper preparation during high school, students are equipped with an ability to handle these questions, suggesting that the perceived difficulty or what is described as "Killers" is manageable rather than inherent. Second, the Academic Rigor repertoire supports the idea that the challenging nature of these questions is essential for the exam to serve as what the exam is supposed to do, serving to effectively distinguish between academically disciplined and prepared students and those not based on their abilities. Third, the Political Influence repertoire suggests that the debates surrounding these questions are more influenced by political agendas than by educational standards, which indicates that the "Killer Questions" discourse is shaped by political rather than academic concerns.

By utilizing linguistic and cultural resources, the students contest the perceived unfairness of the "Killer Questions," illuminating how educational debates are often entangled with broader social and political contexts. This research highlights how educational assessments are perceived and rhetorically negotiated by those directly affected and experienced, offering insights into the complex interplay between education, language, and politics as well as personal experience.

Author

Jae-hyun Im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teacher identity, translanguaging, and discursive psychology.

imjaeh@dnue.ac.kr

중학교 영어듣기능력평가의 의사소통기능 활용 분석

최선희

(전주대학교)

배지영

(공주대학교)

박상복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영어 청취 시험이 2015년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의사소통 기능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해당 시험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중학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유일한 국가 영어 시험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 9월과 2023년 4월에 시행된 중학교 1, 2, 3학년 시험에 포함된 대화문의 의사소통 기능 사용을 분석했다. 총 100개의 대화에서 1258개의 T-unit을 추출했으며, 각각의 T-unit을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과 비교했다. 분석을 통해 '정보 교환' 기능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설득 및 제안하기'와 '자신의 의지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의사소통 복구'와 '지식, 기억 및 확신 표현'과 같은 기능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학년별 의사소통 기능 사용에 일관성이 없었다.

Authors

최선희, sunheech@jj.ac.kr

전주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직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제2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정서 요인, 측정 도구 개발, 교재 개발, 교사 교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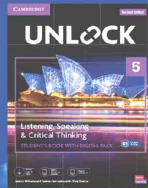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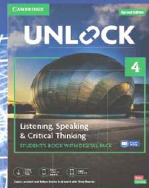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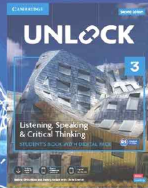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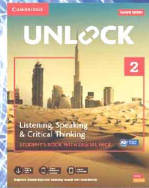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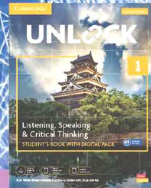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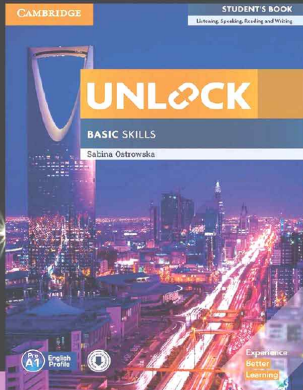
배지영, jybae423@kongju.ac.kr

공주대학교 영어교육학과에 교수로 재직중이며, 주요 연구 관심사는 제2언어 문해 교육, 문학 기반 영어 교수법, 디지털 문해력이다.

박상복, lieutpark@kice.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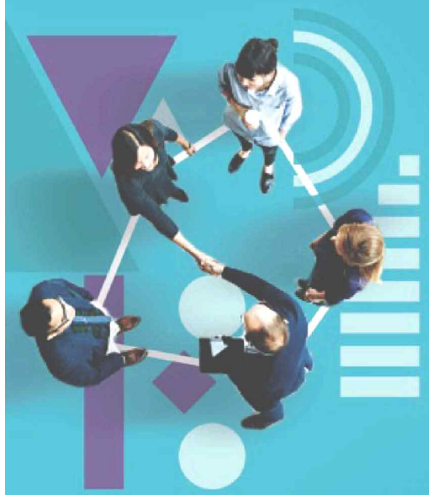
영국 랑카스터대학에서 영어 평가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영어평가, 평가심리이다.

UNL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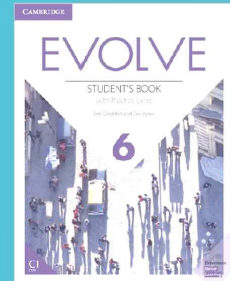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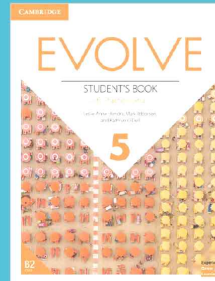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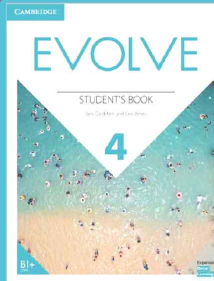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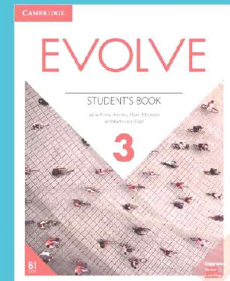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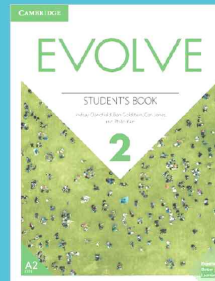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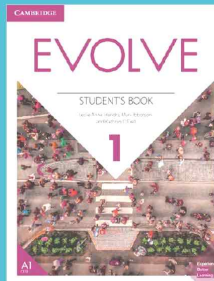


Watch a video overview and download sample content, audio and free resources.

cambridge.org/unlock



EVOLVE SPEAKING MATTERS



Smart CHOICE

NEW
FOURTH
EDITION



Smart learning - your way, every day!

매일 매일 내 방식대로, 스마트 러닝!



대 상 중등~성인

단 계 6단계 (Starter~Level 5)

- 구 성**
- Student Book with Online Practice
 - Workbook
 - Multi-Pack: Student Book / Workbook A
 - Multi-Pack: Student Book / Workbook B
 - Teacher's Guide with Teacher Resource Center
 - Classroom Presentation Tool Access Card



SMART CHOICE

FOURTH
EDITION

특징

- 전 세계의 선생님들이 극찬한 “One Page = One Lesson” 구성
- 더 많은 참여와 동기 부여 방법 제공
- Student Book의 매 유닛마다 수록된 새로운 Over to You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대화를 이끌어내 줄 수 있고, 잘 짜여진 구조와 대화 모델로 모든 수준의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다큐멘터리 비디오로 실생활 주제를 탐구할 수 있으며, 보너스 유닛의 비디오 활동을 통해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외 모든 비디오 파일이 신규 제작 되었습니다.
- 퀴즈, 설문 조사, 게임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 Online Practice가 새롭게 모바일용으로 최적화되었습니다.

E*PUBLIC shapes the future.

내일을 만들어 가는 교육문화기업 이퍼블릭

1989년부터 옥스포드 대학출판부의 ELT 교재와 참고자료를 국내시장에 공급해오고 있는 이퍼블릭(구 범문사)은 1955년 외서수입회사로 시작하여 60년 이상 우리나라의 교육발전과 국제화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Connecting you to the best!

Oxford University Press

전통과 신뢰를 자랑하는 옥스포드 대학출판부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한 부서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출판 사업을 통해 옥스포드 대학의 가치인 연구, 학문, 교육 분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 내 ELT(English Language Teaching) 부서는 영어 교수 및 학습 자료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전세계 170개국 이상에 교재를 공급하며 매년 수백만 교사와 학생들의 영어 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PUBLIC

(주) 이퍼블릭 옥스포드 ELT 교재 공식 수입사

www.epublic.co.kr

(07995)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11 범문빌딩
TEL : 02-2648-5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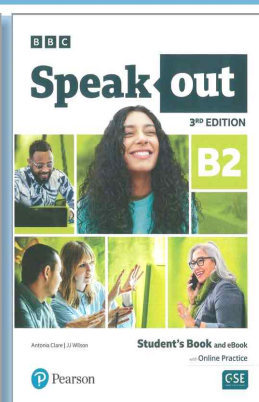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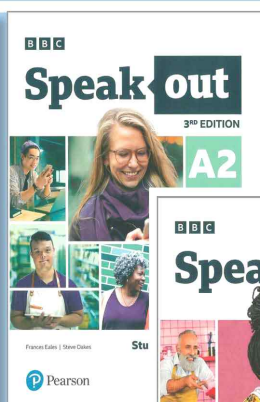
OXFORD
UNIVERSITY PRESS

www.oxford.co.kr

BBC

Speak out

3RD EDITION





- Built on the Global Scale of English, providing clear objectives for every stage of a lesson
- All-new BBC video, including clips from popular TV programs, street interviews, and vlogs for maximum exposure to authentic English as it is spoken around the world
- Mapped to external exams, including the Benchmark Test and Pearson English International Certificate





부산대학교 오시는 길 (#306 인문관)

 <p>부산역에서 오실 때</p>	<p>철도를 이용하여 부산역에 도착하는 경우, 부산역 광장으로 나와 지하철 부산역에서 지하철 1호선 노포동 방향의 열차를 타서 부산대역에서 하차합니다. 지하철 탑승시간을 기준으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3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정문까지 약 10~15분 정도 추가 소요됩니다.</p>
 <p>노포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오실 때</p>	<p>고속버스를 이용하여 부산에 오시는 경우, 버스 종점인 노포동 고속터미널에서 하차합니다. 터미널과 연결되어 있는 노포동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1호선 신평방향의 열차를 탄 후 부산대역에서 하차합니다. 지하철 탑승시간 약 15분 정도입니다.</p>

#306 인문관 입구



※ 학술대회(6월 15일이 토요일이라 표시된 입구로만 출입 가능합니다.)

